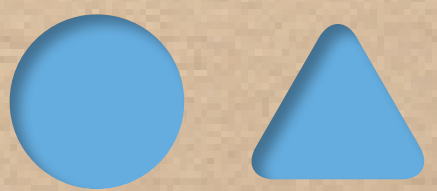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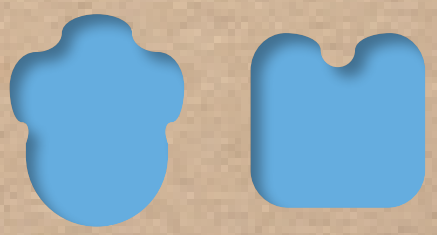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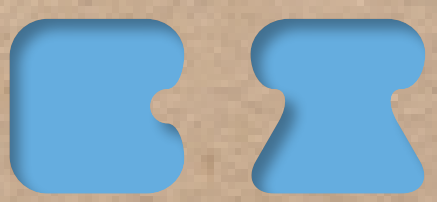
vol.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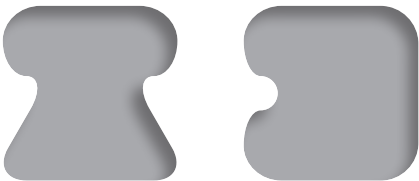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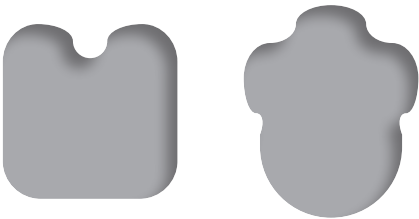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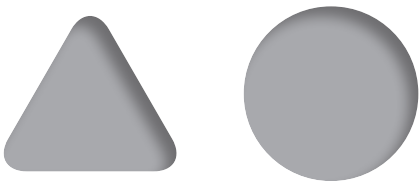


ZOOM-IN
기획대담
성적 대상화?
익숙하지만 외면하는 것!



ISSUE & VIEW
우리들의 성폭력 인식은
변화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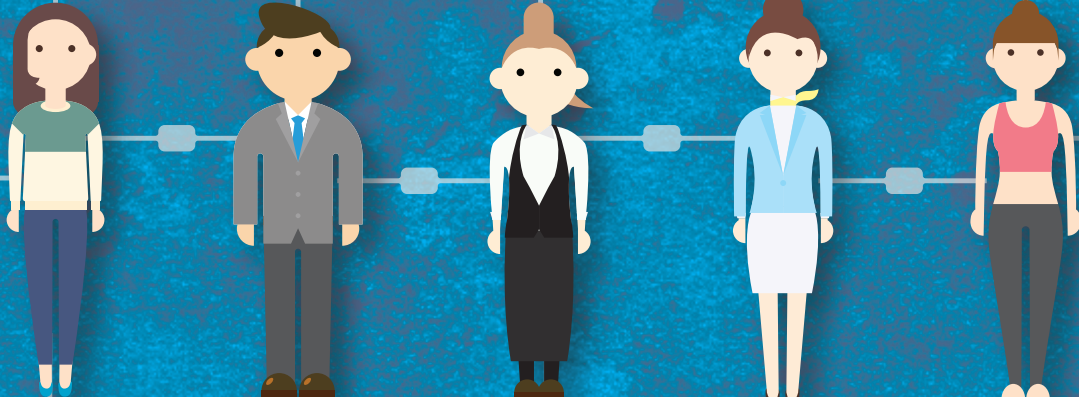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연 2회 함께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발 행 인 | 대전광역시장
발 행 일 | 2019년 6월 30일
편집위원 | 주혜진·김민영·김민성·최성은·허용주 편집 | 김성곤
발 행 처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디자인·제작 | 디자인스튜디오 203 대전

CONTENTS	
Zoom-in	
성적 대상화? 익숙하지만 외면하는 것!	2
Issue&view	
우리들의 성폭력 인식은 변화하고 있나?	8
Gender Talk	
메갈리아의 두 딸들: 여성주의 커뮤니티에 대한 양극화	14
20대 여성의 이성 교제 및 성행동을 통한 자아정체성 형성	16
성적 대상화,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	18
성적 대상화, 건강한 사회적 담론이 필요해	19
함께하는 생각	
디지털 성범죄 ALL STOP!	20
市가 청년을 호명할 때 그곳에 '여성 청년'이 있나요?	22
이야기 하나	
두런두런 이런 일이	24
이야기 둘	
여성계 활동 이모 저모	28
김감유소식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News	30
문화와 젠더	
그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싸웠나	32
드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혐오 논란	34
Let The Party Begin!	
우리가 좋아하는 리듬이 있지	38

성적 대상화? 익숙하지만 외면하는 것!



이미지 속 사람이 ‘그’가 아닌 ‘그것’이 되는 것, 괜찮을까?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매체가 담고 있는 이미지의 가장 큰 문제는
‘스테레오타입 stereotype’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매우 즉각적이고 빠르게 전달된다.
광고와 영화,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영상과 사진 속 여성의 이미지는 여성의 몸을
관찰과 품평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 관찰과 품평이 지속되면
‘여성은 이러이러해’, ‘여성은 다 그래’로 인식이 단순해지고, 여성의 몸과 성은
인격체로부터 분리되어 누군가의 기쁨이나 감상의 대상으로만 머물게 된다.
이번 기획대담에는 ‘성적 대상화’를 처음으로 깊이 고민하게 된
보통의 남성 다섯명이 참여했다. ‘내가 본 대상화 사례’부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의 폭과 깊이는 들쭉날쭉하다.
그래도 답을 찾고 길을 만들어 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찬우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생

김상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원구환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문석
YTN 기자

박제희
카이스트 학생

원구환 오늘 대담의 주제는 성적 대상화를 둘러싼 인식, 사회적 영향력과 관련된 젠더의 갈등입니다. 주제와 관련해 다들 직·간접적으로 접하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경험적 이야기들 중심으로 고민해보고 해결책이라고 하기까지는 과하지만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 성적 대상화는 다들 경험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모르고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경험하기도 했을거예요. 제 경험에 따르면 남성 혹은 여성끼리 그러니까 동성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때 성적 대상화가 가장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흔한 예로 동성끼리 모였을 때 이성에 대해 점수 매기는 것을 들 수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문제는 SNS에 있다고 봐요. 자극적인 내용을 다뤄야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적 대상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이문석 저는 성적 대상화라는 것의 구분이 조금 애매하다고 느껴요. 이 문제를 다룰 때 성적 대상화와 본능, 젠더 갈등에 대해서 구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박제희 저희 학교는 공대, 자연대 계열이에요. ‘끼리끼리 모이면’ 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대부분이 남성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더 스스럼이 없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아직도 해요. 특히 20대 남성들은 지금 사회가 여성 상위 시대고 남성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찬우 저는 특히 군대에서 그걸 심하게 느꼈던 거 같아요. 학교와는 달리 군대는 남성들끼리 모여 있고, 강한 남성성을 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저도 장교로 전역을 했기 때문에 군대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선임과 후임이 같이 초병근무를 나갈 때 심심하니까 선임이 후임에게 성경험 혹은 유사한 이야기들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아직도 해요

박제희

“

저는 윤리적으로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이찬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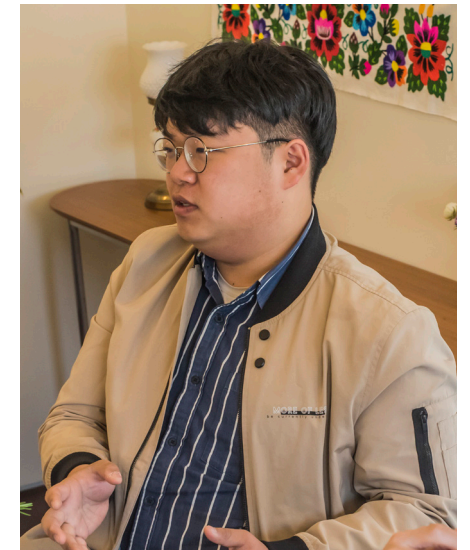


“

모든 사회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문석

”



여성(품)의 가치=돈의 가치?

원구환 자본주의 시장 체계 속에서 상품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광고를 하죠. 제 생각으로는 아주 건전한 광고들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웃음),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원하다 보니 성적인 자극이 강한 광고들이 넘치게 되는 것 같아요. 광고가 대표적이지만 광고 외에도 다양하게 여성을 상품화 한 것들이 많죠. 대부분 남성들이 소비층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찬우 성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상품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무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품화는 결국 비용의 지불이라는 시장의 논리를 통해 그 이면에 존재하는 책임의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게 되죠. 성과 관련해서도 '내 돈 주고 사는 것인데 뭐 어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지' 이런 사고가 가능한 것이죠. 저는 윤리적으로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김상기 일상적으로 성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 상품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성을 상품화 하는 행동이나 말을 기본으로 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성 상품화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면 문제적 행동과 말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무엇이 문제인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성 상품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을 상품화 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제희 성적 대상화나 상품화의 '주 구매자가 남성이다'라는 것을 돌려서 얘기하면 '주 판매자는 여성이다'라는 인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서비스를 쉽게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 시장체계는 확고하고 깨기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은 별개로 남성들은 여성이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석 제가 기획대담을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자료를 보다가 인셀(Incel)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비자발적 순결주의자 (Involuntary Celibate)의 약자인데요, 최근 영미권에 거주하면서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20~30대 백인 남성을 의미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모태솔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혐오하고 성적인 노예로만 생각하면서 흉악범죄도 저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전문기관에서 내놓은 분석은 "최근 인셀 관련 범죄가 늘어난 것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높아지면서 여성을 성욕 충족의 도구로 자유롭게 활용해왔던 과거에 비해 상실감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된 것은 참 반가운 사실인데 또 반면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더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이성을 인간으로 보기 위한 노력

원구환 우리 세대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성평등이라던가 성희롱 관련 교육이 전혀 없었어요. 요즘은 어떤가요? 성 차별이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 인식 같은 교육이 있나요?

이찬우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교양수업도 있고 사회학과 자체의 분위기가 여성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와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보게 된 거 같아요.

김상기 저는 지금도 여대가 있지만 모든 학교가 남녀공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성학교를 가면 최소 6년은 이성에 대해 모르는 거잖아요. 같은 성의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다른 성을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때 생긴 고정관념 또는

잘못된 인식은 대학을 가더라도 쉽게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학교 밖 사회처럼 동성으로 학교를 묶을 것이 아니라 이성들이 모여 있는 학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박제희 관련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영상 사이트 등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자극적인 내용을 접하기가 쉬워진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각하기도 전에 습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고정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닌, 더욱 다양한 존재가 세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테니까요.

이문석 전 모든 사회현상을 다양성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과 인권의 테두리 안에서 저촉되지만 않으면 모든 걸 수용하는 문화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가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국영수 교육만 할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할 거 같아요.

김상기 최근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시민제 안공모사업을 받았는데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성교육이었어요. 학교나 학교 인근에 콘돔 자판기 설치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청소년'과 '성'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20대 초반의 남성과 여성도 아직은 그 범주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려받은 옷이 맞지 않으면 새로 사 입던지 고쳐 입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억지로 입어야 하는 상황인거죠.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이길 원한다. _ 탈 코르셋

원구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관련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까요? 탈 코르셋 운동이라는 것이 있죠.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의 잣대를 거부하는 행동인데요. 개인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존중해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상기 탈 코르셋이 왜 나왔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의 일례로 안경 쓴 여성을 싫어하는 남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때문에 안경을 안쓰는 여성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성 활동가는 일부러 안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탈 코르셋이라는 것이 '하고 싶으면 해!' 이것은 전제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왜 하는지'가 중요할 거 같아요. 브라지어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알게 모르게 눈치를 주는 구조가 문제인 것이죠. 여성은 핑크, 남성은 블루, 이런 이분법적 인식 구조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다른 형태와 생각을 존중해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박제희 사실은 사람은 변하는데 전체적인 틀은 유지가 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틀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맞지 않는 옷'으로 예를 들어 말씀해주셨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탈 코르셋을 하는 여성을 특이한 케이스로 취급한다면 틀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탈 코르셋의 목적은 사회에서 여성의 모습이 아닌 인간으로 보여 지길 원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사회가 변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찬우 그건 정말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인식의 변화가 빨리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사회 변동에 비해서 사람의 인식은 생각보다 쉽게 안변한다는 거죠. 수 십 년 동안 살아온 방식은 한순간에 안 바뀌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름 저도 평등한 교육을 받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모르게 남아있는 잘못된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한 기준은 만들어줘야 개인 간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지 않을까요?

이문석 아까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탈코르셋 운동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해요. 법적인 테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탈코르셋 운동에 대해 가타부타 평가할 필요가 없지요. 또한 활동가들도 탈코르셋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되구요.

젠더 갈등은 평등 사회를 위한 성장통일까?

원구환 여성 스스로 자신들의 지위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남성들에게는 여성혐오를 유발하는 사례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강남역 살인사건을 봐도 서로 대립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남성중에서 20대가 유난히 여성, 페미니즘에 대해 강한 불만, 혐오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박제희 네,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 페이스북 대나무숲이나 에브리타임 같은 게시판 올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주제가 나오면 전쟁터가 되거든요. 시사인 기사에서 나온 그래프를 보면 20대 남성만 혼자 다른 곡선을 그려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구요. 확인하게 여성혐오 분위기가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많이 형성 되어 있어요.

원구환 그 이유가 뭘까요? 20대는 왜 더 여성을 혐오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예요

김상기

박제희 중요한 게 지금 초·중·고 학생들은 성평등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재의 20대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성평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었거든요. 이후 대학을 갔는데 연애를 하기도 힘들고 취직도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 놓이게 되거죠. 거기다가 20대 남성은 우리 사회가 여성을 더 우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성에게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문석 제가 아는 20대 남성들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오히려 남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제희 동등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도 맞는 거 같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페미니즘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이미 여성이 상위사대인데 무슨 여성의 권리를 더 챙겨야 하나' 하는 얘기도 실제로 나와요.

김상기 저는 여성 상위든 남성 상위든 그게 중요하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데이터는 여성이 더 피해자이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얘기 할 수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대다수가 여학생이라고 해서 여성상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박수쳐줘야 할 일이지 혐오해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찬우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20대 젊은 세대는 당장의 내 스펙을 올리고 공부하기 바쁜 사람들이라 뭐가 원인인지를 깊게 생각해볼 겨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지 못하면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 차별을 받고 있는 것 뿐 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젠더 문제 더하기 일자리 문제 더하기 청년 문제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어떤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젠더 문제의 비중은 약 50%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젠더만의 문제처럼 보이도록 포장되기도 해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들이요.

원구환 인식이나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이 한번 형성되면 변화하기가 참 어려운데 거기에서 더 언론도 그렇게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갈등이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증폭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석 어느 쪽이 상위가 되어선 안 된다고 봐요. 모두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목표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제희 저도 서로를 배려해주고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외에도 비슷한 사안에 대해 여성에게만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책임과 관용을 보이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닝썬 사태로 남성 연예인들의 성범죄가 보여 지고 있는데 남성 연예인들은 성범죄를 가지고 연예인 생활이 끝나진 않아요. 그동안 많이 그래왔어요. 그러나 여성 연예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용서가 가능한 사소한 실수로도 매장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연예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회가 우선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김상기 저는 여성을 위한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기



의사결정에 여성이 참여할수록
성과가 좋다는 게 결론이에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그게 바로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원구환

울어진 운동장이예요. 여성이 아직은 하위 계층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등하게 맞추려면 지금 당장 평등은 안되는 거예요. 지금 평등을 맞추려면 계속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여성을 우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더 끌어 올린 뒤에 동등하게 되었을 때 서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한 것이죠. 아직까지는 여성을 더 우대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원구환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 여성이 많이 참여할수록 경영성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가 이걸 바탕으로 공공조직에도 과연 그런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시기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인 것은 여성이 참여할수록 성과가 좋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성이 만약에 100% 참여하면 완벽한가? 그건 또 아니라는 것으로 나왔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그게 바로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측면의 논리보다는 균등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 같아요. 공통된 가치가 먼저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성폭력 인식은 변화하고 있나?



버닝썬을 통해 불거진 불법촬영물 유포 및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여성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보여주는 사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를 성폭력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여성에게 더 가혹한 시선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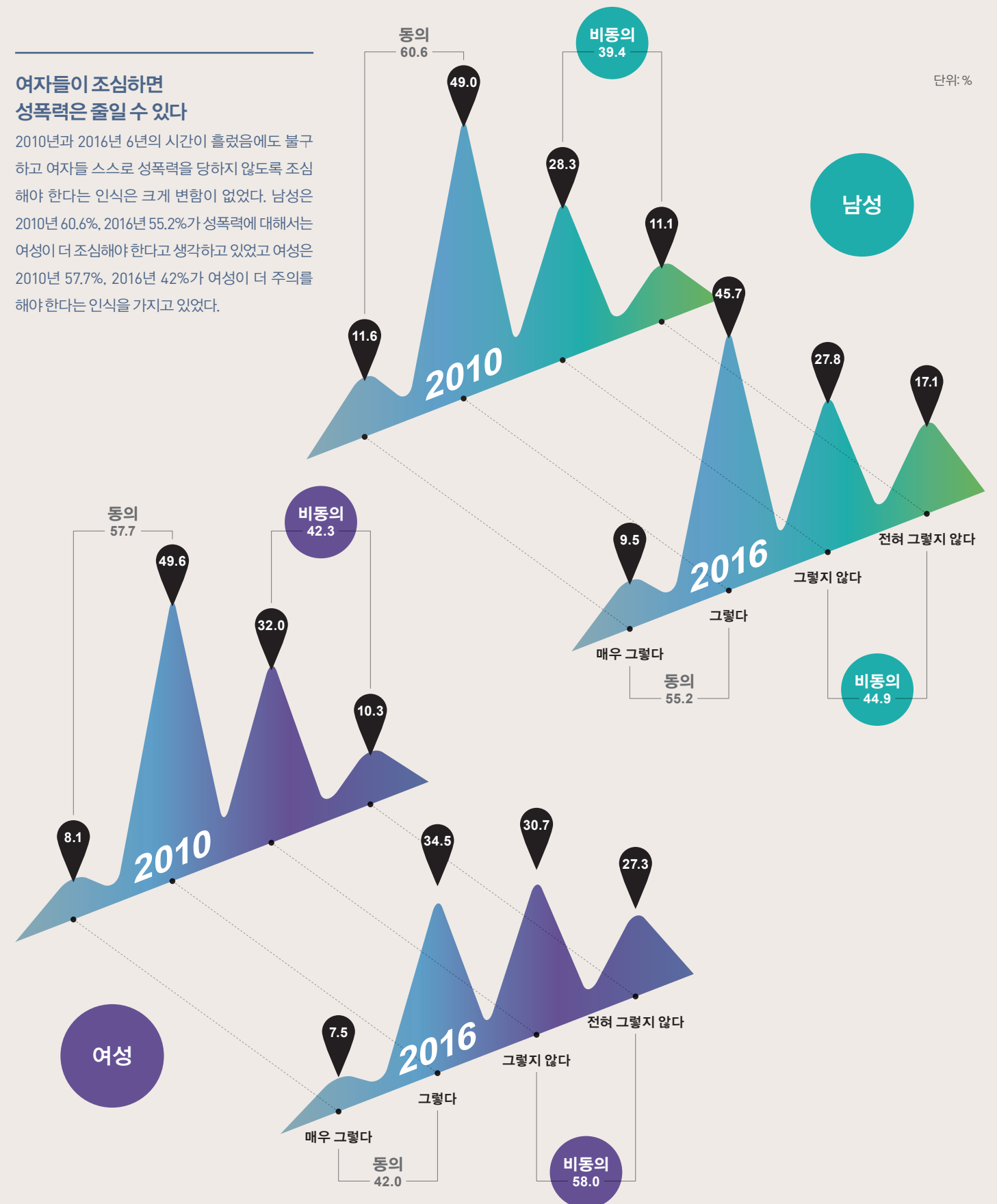
이러한 인식을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과 2016년의 실태조사 결과 중,
시민들의 성폭력 관련 인식에 대한 몇 가지 조사 항목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흐름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래프에 나타난 결과는 표본집단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를 지역별, 인구수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추정비율로 계산한 것임. 2019년 자료는 아직 발표하지 않아서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 자료와 비교하였음.

자료: 여성가족부,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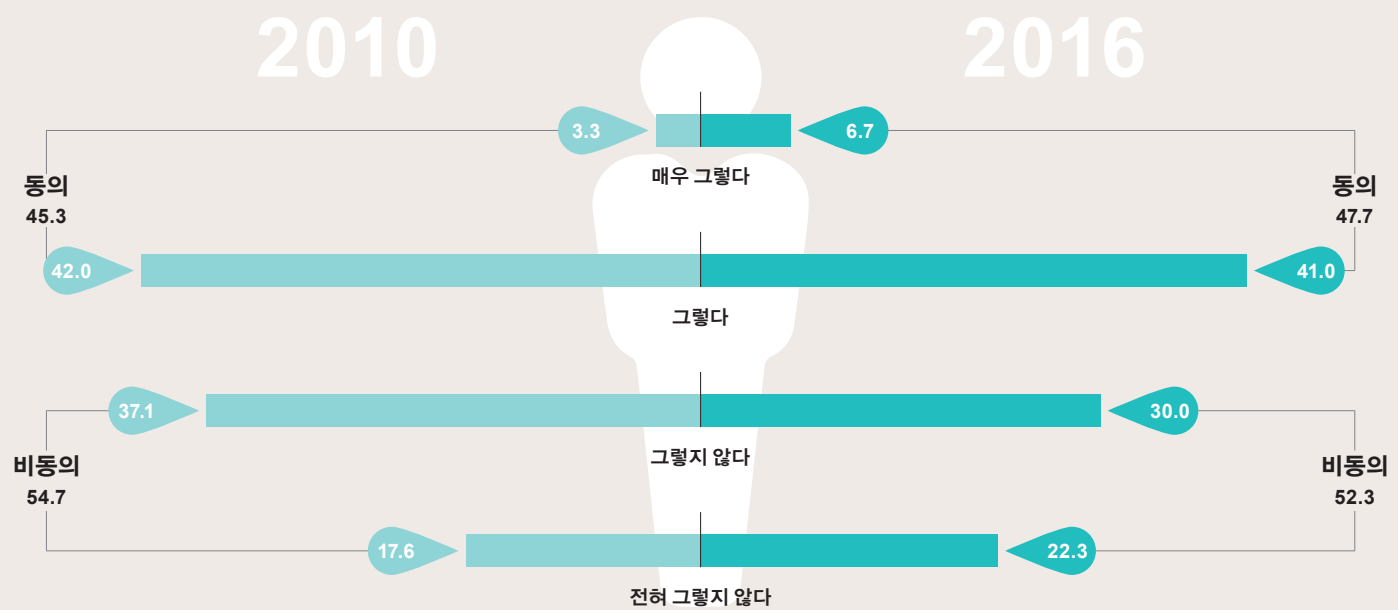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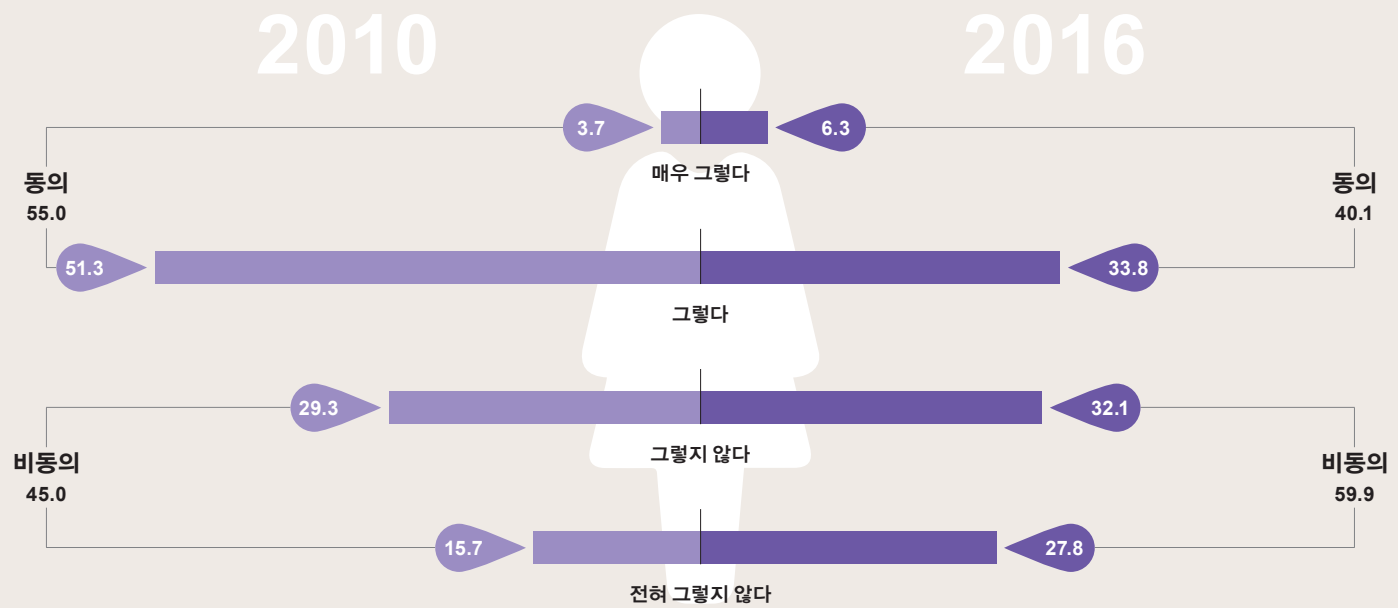
2010년과 2016년 6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여자들 스스로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
해야 한다는 인식은 크게 변함이 없었다. 남성은
2010년 60.6%, 2016년 55.2%가 성폭력에 대해서는
여성이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여성은
2010년 57.7%, 2016년 42%가 여성이 더 주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술은 아직도 범죄에 있어 그 책임을 완화시켜주는 좋은 도구로 사용된다.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면 그 책임이 여성에게도 있다는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남성은 2010년 45.3%에서 2016년 47.7%로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2010년 55%에서 2016년 40.1%로 낮아지긴 했으나 범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시선으로는 아직도 매우 높은 수치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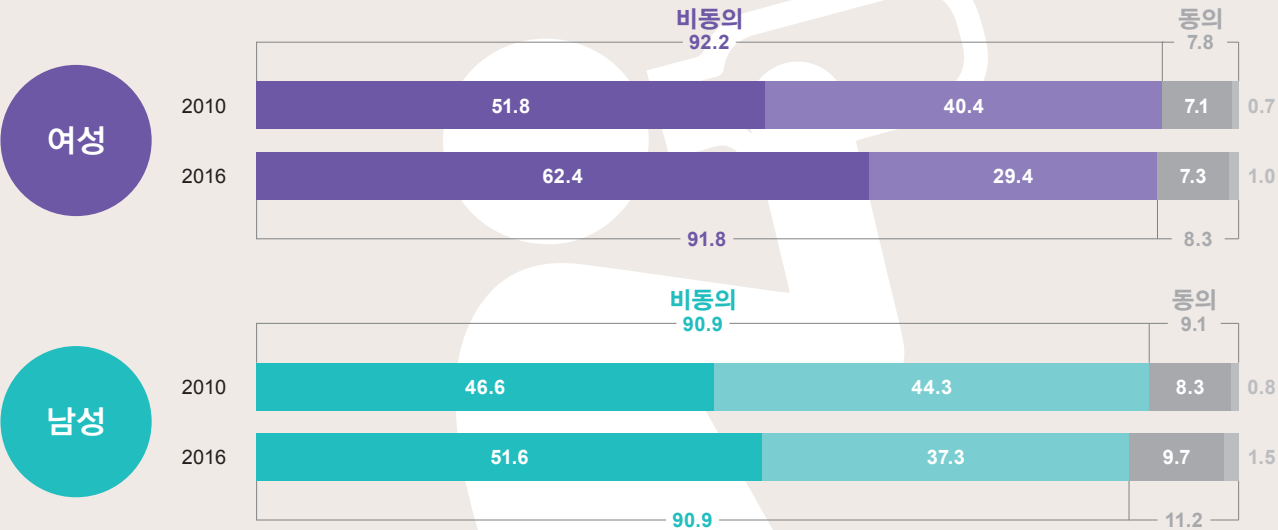
단위: %



남자가 술을 마시고 하는 성적 행동은 실수로 용납될 수 있다

2010년 남녀 각각 90.9%, 92.2%에서 2016년 88.9%, 91.8%의 비율로 남성이 술을 마시고 하는 성적 행동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10년에 비해 2016년 조사 결과에서 남녀 모두, 술을 마시고 하는 성적 행동을 용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오히려 남성 2.1%p, 여성 0.5%p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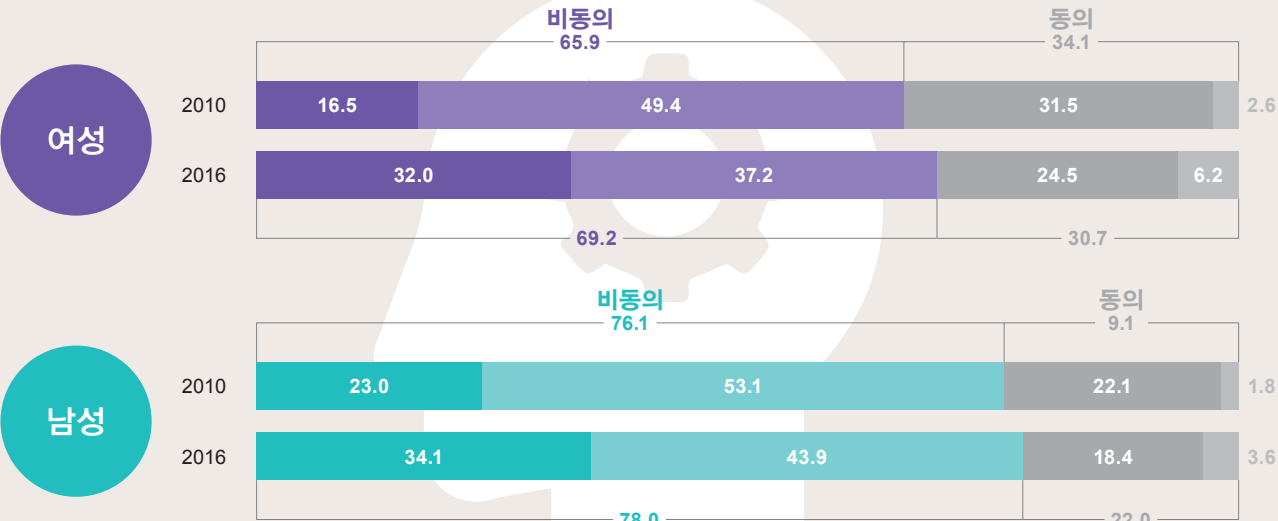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단위: %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다

2010년과 2016년의 인식 변화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남성 23.9%, 여성 34.1%, 2016년에 남성 22%, 여성 30.7%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통제력을 더 믿는 경향이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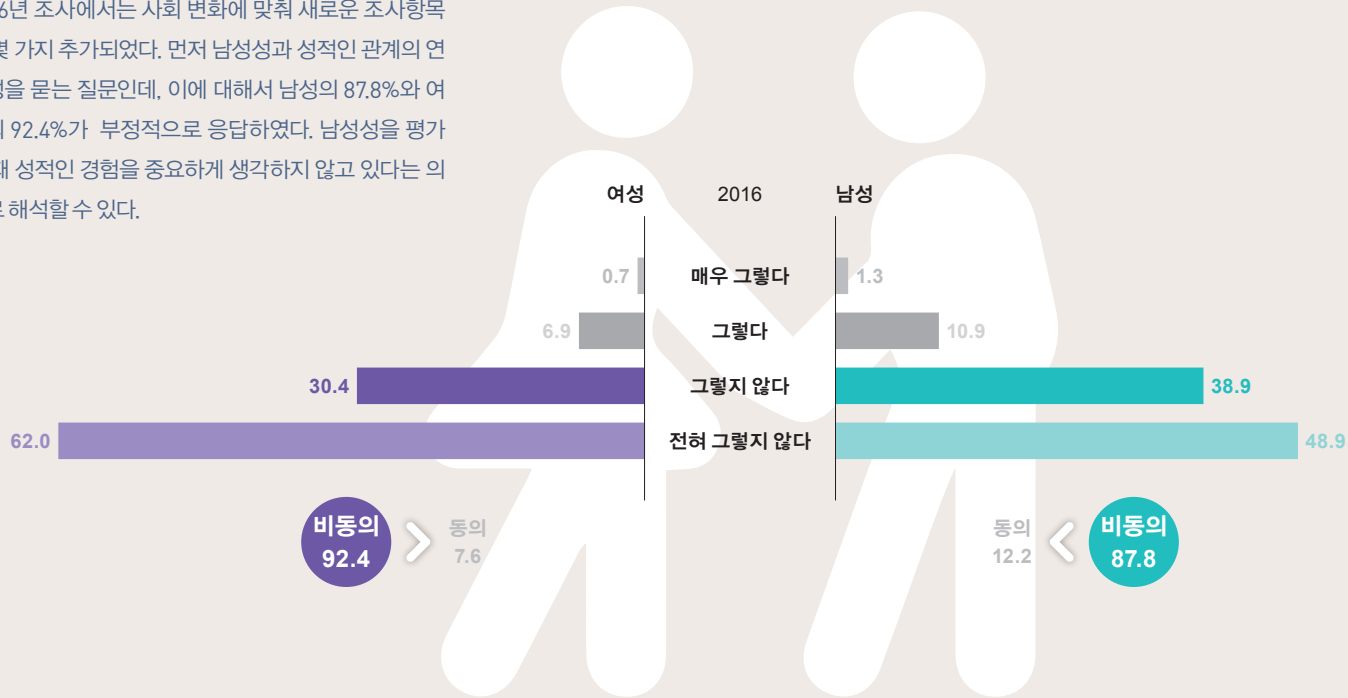


다음의 통계들은 2016년 신규 조사 항목임

성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많을수록 남자답다

2016년 조사에서는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로운 조사항목이 몇 가지 추가되었다. 먼저 남성성과 성적인 관계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인데, 이에 대해서 남성의 87.8%와 여성의 92.4%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남성성을 평가할 때 성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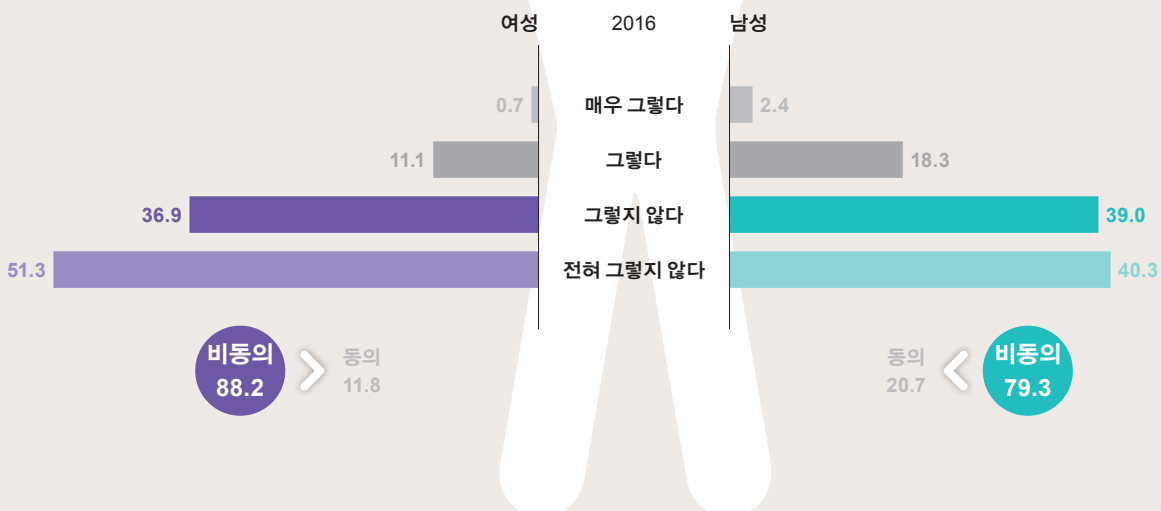
단위: %



남자는 성적으로 강해야 하고 성관계를 주도해야 한다

한편 남성성을 평가함에 있어 성적인 강함과 리드는 성적인 관심과 경험에 비해 조금은 더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20.7%, 여성의 11.8%가 남성은 성적으로 강해야 하며 성관계를 주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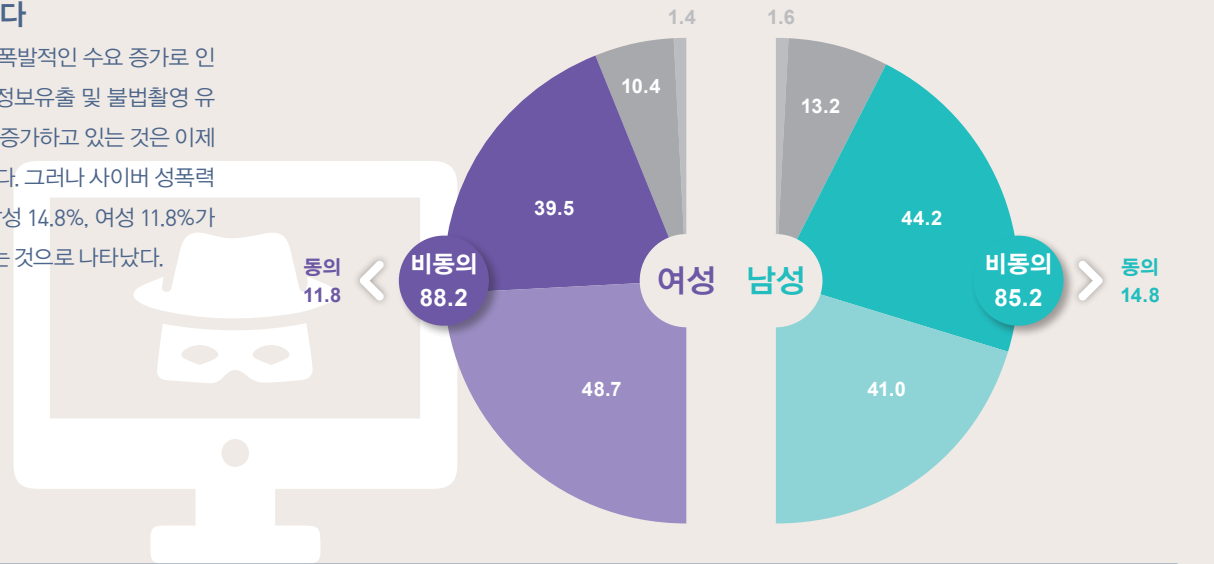
단위: %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유출 및 불법촬영 유포에 대한 문제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남성 14.8%, 여성 11.8%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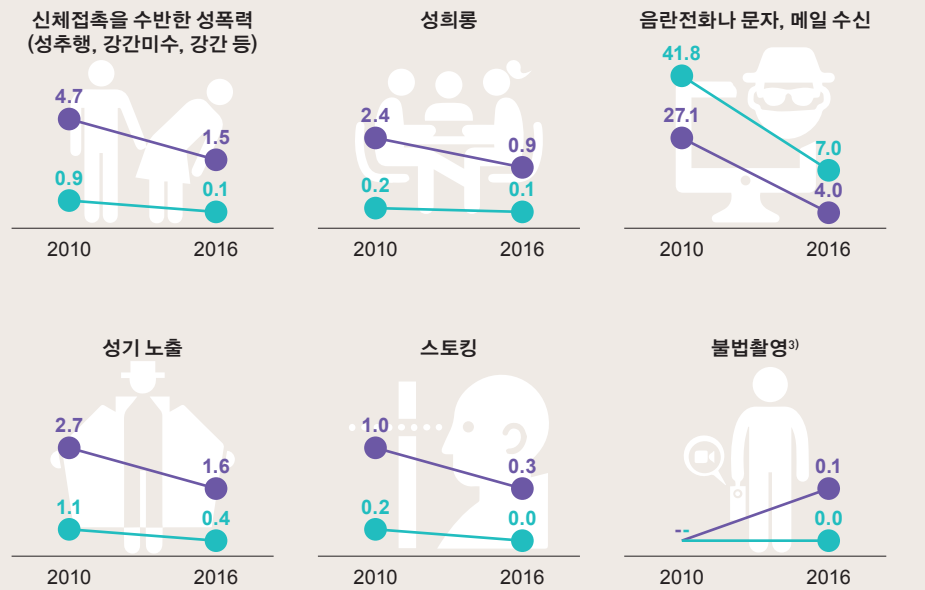
단위: %



최근 1년간 성폭력 피해율

최근 1년간 성폭력 피해율은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가 진행되는 당시를 기점으로 1년간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된 비율이다. 2010년과 2016년의 피해율을 비교해 보면 눈에 띄게 피해율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결과는 추정비율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사례 건수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율을 최소한의 피해율이라고 가정해도 2016년 당시 우리나라 인구²⁾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남성 25,690명(0.1%), 여성 383,550명(1.5%)이다. 이 수치는 단순히 계산해도 남성은 매일 70명, 여성은 천 명 이상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즉 여성이 성폭력에 대해 절대적으로 피해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 %



2) 2016년 당시 전체 인구는 5,126만 명이며 남성은 2,569만 명, 여성은 2,557만 명임. (자료: 통계청, 2016년 '인구총조사')
3)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 보고서의 원래 표기는 '몰래카메라'로 되어 있으나 2017년 정부방침으로 촬영 범죄의 표현을 '불법촬영'으로 변경하였기에 변경된 용어를 사용함

성폭력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성폭력 범죄자들보다 피해자를 더 궁금해 하고 유혹거리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하루 천명 이상의 성폭력 피해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W](#)

메갈리아의 두 딸들: 여성주의 커뮤니티에 대한 양극화

글 · 강정한_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폐쇄된 메갈리아라는
사이트에 대한 해석은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을까?
”

동일한 정보의 다른 해석이 젠더 갈등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현대 사회는 소위 갈등사회라 불릴만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온라인 공간은 더 이상 누구나 발언을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적 소통의 장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습득하고 믿는 확증편향의 공간으로 진화한 듯하다. 그리고 하나의 이슈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두 진영은 각자 확증편향과 자기 강화적 내부 반향(echo chamber)을 통해 갈등의 수위를 높여가곤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젠더 갈등도 이러한 온라인 갈등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 젠더 갈등을 이러한 방식의 온라인 갈등으로 해석하기에는 심각성 면이나 발생 기제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

우선 심각성 면에서 보자면, 보통 온라인 갈등은 정치적 성향의 진보와 보수 사이에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젠더 갈등은 이러한 보수 대 진보의 대립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정치적으로는 중장년 남성들보다 더욱 진보적인 젊은 남성이 젠더 문제에서는 더욱 보수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 갈등은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되거나 세대 간 갈등을 악화시킬 위험도 크다. 젊은 남성의 적은 여성이 아니라 기성세대 남성을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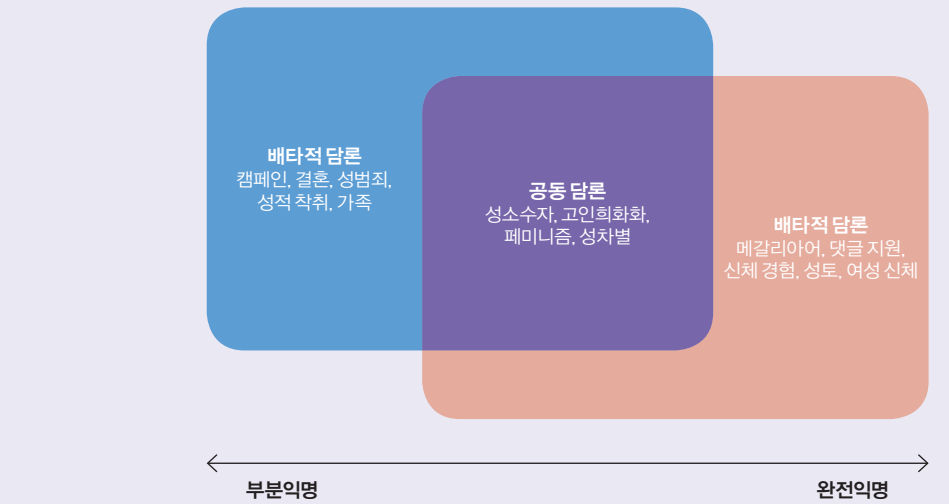
함한 모든 외부인이 되었다. 단언컨대 청년 남성이 중장년 남성보다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다다르지는 않았다. 그들은 분명 젠더 불평등에 기초한 기득권의 양이 기성세대 남성들보다 훨씬 적으며, 과거보다 젠더 평등적인 교육을 받아 왔으며, 현실적으로도 가부장적 경제권을 획득할 전망이 낮아졌다. 이러한 모든 거시적, 제도적 조건들은 청년 남성들이 이전 세대 남성들보다 더 젠더 평등 지향적일 것이라고 예측하게 한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 내에서 젠더갈등은 왜 그렇게 첨예하게 발전되었는가?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발생 기제 면에서, 온라인상에서 선택적 정보 유통에 기초한 보통의 갈등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젠더 갈등의 경우는 양 진영이 처음부터 편협하게 서로 다른 정보를 소비하고 확증편향을 일으켜 갈등이 증폭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동일한 정보를 공유했으나 극명하게 다른 해석에 다다르며 갈등이 증폭되었다. 바로 과격한 여성주의 커뮤니티로 알려진 워마드의 전신에 해당하는 메갈리아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이다. 당시 페미니즘 및 진보진영은 메갈리아를 여성주의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이어가는 커뮤니티로 본 반면, 젊은 남성들에게는 혐오정서에 기반한 여성판 일간베스트로 보였다.

그렇다면 이제는 폐쇄된 메갈리아라는 사이트에 대한 해석은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메갈리아 사이트의 세 가지 특징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 첫째, 메갈리아에서는 로그인을 하여 닉네임을 드러내고 글을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로그인 없이 완전히 익명 상태로도 글을 쓸 수 있다. 전자는 커뮤니티 내에서 형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내걸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좀 더 자유롭게 생각을 표출하는 경우이다. 둘째, 사이트 형성 초창기에 일종의 ‘메갈리아어 사전’을 공표하며 ‘한남충’과 같은 미러링 단어를 비롯해 과격 단어 130여개의 사용을 공식화했다. 셋째, 메갈리아에서는 두 번의 내부 논쟁이 있었는데, 한 번은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의 사망을 희화화한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이며, 두 번째는 남성 동성애자를 강제 폭로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이었다. 두 번째 논쟁에서 남성 동성애자 폭로에 찬성하는 회원들이 대거 이탈해 워마드를 만들었으며, 메갈리아는 쇠락의 길을 걷는다.

익명의 그늘에 숨은 메갈리아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말까지 메갈리아 전 생애에 걸쳐 게시글을 수집하고, 130여개 메갈리아어 사용패턴이 완전 익명 게시글과 부분 익명(즉, 닉네임 노출) 게시글 간에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홍성인·강정한, 2016). 우선 메갈리아어의 사용비율은 부분 익명 게시글보다 완전익명 게시글에서 더 높으며, 그 비율 차이는 두 번의 내부논쟁 시기에 더 벌어진다. 이는 내부 논쟁기에 게시글의 익명성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것을 암시하며, 얼마나 메갈리아어를 사용하는가로 메갈리아스러움을 측정한다면 완전 익명 게시글이 부분 익명 게시글보다 메갈리아의 입장을 더 잘 대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게시글 내 메갈리아어의 전체적 사용 방식을 백터화해 백터 간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해보면, 특히 내부 논쟁기 시기에 부분 익명 게시글이 초창기 게시글과 유사도가 높아지는 반면, 완전 익명 게시글은 초창기의 메갈리아어 사용방식에서 계속 멀어진다. 즉 메갈리아어를 확립한 초창기의 언어 사용 방식이 메갈리아의 정체성을 반영한다면, 닉네임을 걸고 작성한 게시글이 특히 내부 논쟁기때



메갈리아의 입장을 더욱 잘 대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게시글의 익명성에 따라 게시글의 주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 구조적 토픽 모형으로 추출한 39개의 토픽 중, 게시글의 익명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배타적으로 드러나는 토픽들과 게시글의 익명성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토픽들 일부를 정리해보면 구조상 위의 그림과 같다(송준모·강정한, 2018).

닉네임을 걸고 쓴 부분 익명 게시글에서는 전통적인 페미니즘 운동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주제들, 즉 소라넷 폐지 캠페인, 결혼, 가족, 성범죄와 같은 토픽들이 나타난다. 반면 완전 익명 게시글에서는 메갈리아어를 더 자주 사용하며 개인적이고 신체적인 주제들, 남성에 대한 성도 등이 나타난다. 물론 게시글의 익명성 수준에 상관없이 페미니즘이나 성차별과 같은 토픽은 메갈리아의 근간을 이루며, 내부 논쟁의 대상이었던 고인화화나 성소수자 폭로 토픽은 게시글의 익명성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참여했다. 그러나 양 극단 배타적 토픽들의 내용을 보면, 닉네임을 걸고 쓴 게시글은 전통적 페미니즘의 주제에 가까운 반면, 완전 익명으로 작성된 게시글은 자극적이고 개인적인 혐오 표현이 많아 현재의 워마드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메갈리아 전체 게시글의 90% 이상이 로그인을 하지 않고 완전익명으로 작성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만일 여러분이 메갈리아에 호기심을 갖고 방문하여 이런저런 게시

글을 읽어본다면 메갈리아를 어떤 사이트라고 해석할까? 한편 메갈리아를 초창기부터 지켜봤고 주요 글쓴이의 닉네임과 주요 담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면 메갈리아를 어떤 사이트라고 해석할까? 전자의 경우 메갈리아는 극단적이고 배타적이고 개인적 분노가 표출되는 곳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후자는 메갈리아는 전통적인 페미니즘의 관심을 실천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전자가 젊은 남성 방문자라면 후자는 여성 및 진보진영 팔로워(follower)에 해당할 것이다.

페미니즘과 혐오는 잘못된 만남이다

사실 메갈리아 내부 갈등에 의해 워마드가 탄생했다는 배경만 고려해도 메갈리아의 정체를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메갈리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진영이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진영 모두 이러한 모순을 외면하고 메갈리아 전체를 단일하게 해석하고자 했다. 전자는 페미니즘의 진정한 계승으로, 후자는 혐오 사이트로 해석이 단순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진영의 외면이 결합해서 페미니즘은 이제 메갈리아와 워마드를 거쳐 혐오와 등치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현실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이미 되돌리기에는 늦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되돌리기 위해 양 진영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을 쓴 주요 동기이다. **W**

참고문헌

홍성인·강정한. 2016.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이 집단인상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중심으로.” 『사회연구』 30(2): 77–113.
송준모·강정한. 2018. “메갈리아의 두 딸들: 커뮤니티 내 익명성 문화에 따른 담론 분화와 토론 양상.” 『한국사회학』 52(4): 161–206.

20대 여성의 이성 교제 및 성행동을 통한 자아정체성 형성

글 · 김은정_덕성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여성들이 주체성과 자율권을 가지고 성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여성의 성과 욕망은 해방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 여성의 경우에도 이러한 분석이 적용되는가?

”

섹슈얼리티와 자아정체성

이 글에서는 표준화된 삶이 붕괴된 개인화된 시대에서 결혼과 분리된 연애를 하고 있는 20대 여성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들이 어떻게 자아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¹⁾ 기든스(Giddens, 1993)는 현대 사회에서 ‘섹슈얼리티’란 개인의 ‘몸’과 사적 관계의 ‘친밀성’,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사회규범’이 일차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하였으며, 그 결과 ‘섹슈얼리티’는 개인의 자아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한다(Giddens, 1993). 20대 여성들은 과거와는 달리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갖는 것이 당연’하든지, ‘서로를 알아가는데’(즉 친밀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연애 관계에서 성행동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매우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던 경우도 연애 과정의 진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변화하게 됐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20대 여성들은 이성 교제를 하게 되면서 성행동에 대한 욕구를 인지하게 되며, 이것이 친밀감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섹슈얼리티에 대한 기존의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변화되고 있었다. 사실, 한국의 20대 여성들은 과거와는 달리 성행동과 연애

를 결혼과 밀접하게 연결시키지 않고 있으며, 결혼과 분리된 연애를 하고 있었다. 그 안에서 수동적이라기보다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행동을 통한 친밀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섹슈얼리티란 친밀성과 몸에 대한 일련의 생각과 행동들이 사회 규범과 연계되면서, 개인의 자아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Giddens, 1993)’고 할 때, 이들도 새로운 성 각본을 내면화하면서 다양한 성 행동을 실천하면서,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양식을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여성의 성과 욕망은 해방되었을까?

한편, 기든스는 가족과 분리된 섹슈얼리티라는 점과 관련하여,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즉 가족 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재생산과 섹스가 분리된 조형적 섹슈얼리티가 가능해졌고, 그에 의해 여성들이 주체성과 자율권을 가지고 성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여성의 성과 욕망은 해방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 여성의 경우에도 이러한 분석이 적용되는가? 연구 결과, 순결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인 성 관념은 어느 정도 폐기가 되었고,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기든스가 이야

기한 것처럼, 재생산과 섹스가 분리되고, 이를 통해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차원에서 여성의 성욕망이 가능해졌다고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재생산 영역은 여전히 결혼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난 후 형성되는 가족의 영역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재생산과 섹스와 분리된 조형적 섹슈얼리티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행동은 사적 영역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되었으며, 이 영역에서 여성들은 성적 주체로 행동하지만, 재생산의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재생산은 개인의 영역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공식적인/가족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개인화된 영역에서, 공식화되지 않은 사적 영역에서 변화된 여성의 성과 섹슈얼리티는 어디까지나 ‘보이지 않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동거’등을 비롯한 결혼의 대안양식으로 공론화/공식화되지 못한다. 타인에게 ‘보여 주지 말아야’ 하는, ‘알려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가부장적 가치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재생산 영역에 편입한 사람들(예를 들어 미혼모)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인식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

러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결혼을 거치지 않는 재생산 영역의 편입은 미혼 여성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볼 때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성 주체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된다. 그러므로 20대 미혼여성들은 연애편계에서는 자신감, 힘과 자기 표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재생산 영역과 관련하여(임신, 출산, 동거 등을 통해) 공개화하여 자신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이것은 장래 있을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스펙 관리의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박소진(2009)은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강력한 사회문화적 논리가 되었다. 또한 경제와 복지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가족 단위의 책임으로 전가되면서 가족 책임체계를 더욱 강화시킨 결과, 한국 가족은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 형성의 장이 되었다고 한다(박소진, 2009; 12). 개인은 ‘자기계발의 주체’로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개인이 전적으로 지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20대 여성 개인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성공적인 결혼을 통해 경제적 생산 단위인 가족(엄기호, 2014)에 편입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및 선택지가 된다. 이러한 선택지를 위한 스펙 관리, 즉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재생산 영역과 관련해서 통제하는 것’은 아직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삶을 기획하여 살아 가려고 할 때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따라서 20대 여성들에 있어서 섹스와 재생산은 아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기든스가 이야기한 섹스와 재생산을 분리하는 조형적 섹슈얼리티를 실천하는 것(Giddens, 1993)은 요원한 일이 된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삶의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20대 여성 개인의 자아정체성은 재생산 영역까지 확장된 성적 주체성을 포함하기는 아직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된다.

사회 변화에 따른 한국 20대 여성들의

다양한 자아정체성 전략

이상에서 위험 사회를 살아가는 20대 미혼여성들이 이성교제와 성행동이라고 하는 중요한 성인기 준비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아네트에 따르면 지금의 20대들은 과거 20대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수행했던 결혼이라는 과업을 하지 못하고, 대신 결혼과 분리된 연애와 이성교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성인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간다고 하였다. 한국의 20대 여성들도 개인화된 위험 사회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연애를 하고, 변화된 성의식에 따라 능동적인 성 행동을 하기도 한다. 한편, 자신의 삶을 위한 스펙 관리의 차원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의 한계를 정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획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연애와 관련하여 장래 위험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능동적인 성 인식과 행동을 보이는 부분과 교차 또는 상충하기도 하는데, 20대 여성들이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자아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젠더 관계는 지각변동이라는 단어가 적합할 정도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20대 여성들의 친밀성, 연애, 그리고 섹슈얼리티,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아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해나갈지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이 글은 필자가 2016년도에 한국여성학회지에 발표한 ‘성인모색기 20대 여성의 이성교제 및 성행동을 통한 자아정체성 형성에 관한 일 연구’를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성적 대상화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

글 · 하문희_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학년



“

성적 대상화, 특히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대중매체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다. TV에 나오는 여성 아이돌그룹이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저런 행위가 여성 인권을 후퇴시킨다.’고 쓰인 댓글 또한 종종 보인다. 성적 대상화란 무엇이고 성 상품화란 무엇일까? 여성혐오라는 말은 어떤 때에 붙는 말이며, 성적 대상화는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일까?

사실 성적 대상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작은 단어 하나로 인해 의도치 않게 한 쪽의 편만을 들어주는 극단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애초에 어느 한 쪽의 의견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성적 대상화, 특히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대중매체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여성 아이돌그룹의 안무와 의상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해당되는 일이다. 특히 애니메이션에서 이러한 성적 대상화가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여성 캐릭터의 특정 신체부위를 터무니없이 강조해서 그리거나 성적인 어필만을 위해 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몇몇 사람들은 “남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유독 여성의 성적 대상화만 반대하는 것은 이중적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출과 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성과 남성의 성적 대상화는 동등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몇 년 전 경찰청 홍보 포스터 속 모델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포스터 속의 남성 모델은 커다란 덩치와 근육을 강조하여 남성의 강인함과 듬직함을 드러낸 반면, 여성 모델은 날씬한 몸매와 예쁜 얼굴을 가진 인물을 내세우며 경찰이 하는 일과는 관계

가 없어 보이는 아름다운 외모를 강조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의 성적 대상화는 적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남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지, 대중매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남성의 성적 대상화와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시점의 차이가 있다. 남성의 성적 대상화는 예로부터 남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고정적 성 역할이 “상품화”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말 그대로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 대상화에 대한 문제는 한쪽의 관점에서만이 아닌, 양쪽 성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성적 대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실 성적 대상화에 대해 반대를 한다고 말을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마음대로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상 그런 것들이 나오는 미디어도 본인이 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렇다면 성적 대상화는 정당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표현의 자유 또한 용납되는 것이지,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정당화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성적 대상화에 대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을 너무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한쪽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W**

성적 대상화

건강한 사회적 담론이 필요해

글 · 유창현_충남대학교 철학과 4학년



“

성의 대상화를 둘러싼 대립의 근본적 원인은 자유와 평등의 양립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충돌로부터 비롯된 딜레마다

”

성장의 과정임을 의미한다.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논쟁이 불거질수록 쟁점의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이 모호할수록 이견을 좁히기 어렵고 특히 젠더감수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말 한마디가 논란을 낳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성의 대상화(Sexual objectification)는 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의 도구나 상품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적 객체화, 객관화, 사물화, 상품화 등 다양한 표현으로도 쓰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의 대상화’라는 사회적 담론은 당사자에 따라 그 의미와 척도가 달라지며 전반적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기 때문에 규정이 쉽지 않다. 최근 많은 논란이 되었던 여가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는 외모의 확실성이 성평등에 위배가 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혹자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킴으로써 성적 대상화의 문제점을 짚었다고 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정부의 규제와 언론검열로 느껴진 것이다. 따라서 위의 정의 또한 절대적이지 않다. 그렇기에 이렇수록 감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각 입장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18세기 근대 유럽에 불었던 계몽의 바람 이후로 격동의 근대, 현대사를 거쳐 오늘날 여성의 권리는 과거에 비해 많이 신장되었다. 여성의 성적 자유는 확장되었으며 여성의 성이 임신과 자녀 출산의 수단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존엄한 권리로 인식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성장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 논쟁이라는 성장통 또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성의 상품화 논쟁의 대표적인 예시로 F1경기의 그리드 걸과 격투기 경기의 라운드 걸이 있다. 그리드 걸과 라운드 걸은 경기 그 자체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잇따른 성 상품화 논란으로 인해 경기 주최 측이 그리드 걸과 라운드 걸을 폐지하는 사례도 생겼다. 누군가의 ‘투쟁’을 통한 여성해방의 산물’이 당사자에게는 ‘실업의 일등 공신’과 ‘선정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결과’가 된 것이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다. 한 여성이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해 성형수술을 받았다. 여성의 주체성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여성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할 행동이지만 동시에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와 여성의 외모를 상품화한 소비주의의 산물로서 볼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미니스커트가 여성의 해방과 동시에 성 상품화의 심볼(symbol)이 되는 모순이다.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의 대상화를 둘러싼 대립의 근본적 원인은 자유와 평등의 양립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충돌로부터 비롯된 딜레마다. 무한한 자유와 절대적인 평등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극단적인 가치 추구는 이중성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대립과 병폐를 야기할 뿐이다. 그렇기에 어느 하나만을 절대화하여 모순을 초래하는 상황을 지양하고 유기적으로 공존하기 위한 건강한 사회적 담론이 필요하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해하며 균형점을 찾아나갈 때에 우리 사회가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으리라 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W**



디지털 성범죄 ALL STOP!!

1.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일까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2.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 ❶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_2017.9.26.**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 정책을 추진합니다.
- ❷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_2019.1.24.**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의 신속한 차단 및 주요 가담자 강력 처벌, 법·제도 정비, 공공필터링 도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 정책 등을 실시합니다.
- 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_2019.2.11.**
아동 포르노물·불법촬영물 같은 불법 음란물 및 불법 도박 등을 유통하는 해외인터넷사이트의 접속을 집중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기관

-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02-735-8994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3. 두려워하지 말고 대처하세요

+ 불법촬영

누군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피해

- ① 불법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에 바로 연락하거나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② 몰래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면 해당 카메라를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③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을 기억합니다.
- ④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현장 주변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유포피해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촬영물이 몰래 유포되거나, 합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된 피해

- ①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된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 ② 증거 자료를 모은 뒤 인쇄해 관할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 ③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상담한 후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④ 삭제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리 삭제를 요청합니다.
- ⑤ 직접 삭제를 원할 경우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삭제방법

- ① 웹하드에 유포되었을 경우 **해당사이트**에 직접 삭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② 불법 포르노사이트에 유포되었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③ SNS에 유포되었을 경우 **해당 SNS의 신고 창구**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주변의 관심이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지인의 불법촬영 동영상을 당신이 먼저 알았을 때, 어려워도 반드시 지인에게 알려야 신고, 고소 등 사건처리 방법을 본인이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더 커진 후 무방비 상태로 알게 되는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지지 속에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를 지지해 주세요

유포된 피해촬영물을 신속히 찾아내 삭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당신이 먼저 나서서 피해촬영물을 추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성적촬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에 알려거나 피해자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지지합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회복 시도를 망설일 때 강요하거나 독촉하는 대신 어렵게 내딛는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불안함을 느낄 때 피해자를 지지하는 당신이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W**



5.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 여성긴급전화

- 연락처 1366
-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 www.women1366.kr



+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 연락처 02-735-8994
- 상담시간 평일 10:00~17:00
- www.women1366.kr/stopds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연락처 02-817-7959
- hotline@cyber-lion.com
- 상담시간 평일 13:00~17:00
- www.cyber-lion.com



+ 대전스마일센터

- 연락처 042-526-1295
- djsmile1295@hanmail.net
-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 www.resmile.or.kr



+ 대전해바라기센터

- 연락처 042-280-8436
-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 www.djsunflower.or.kr



+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 연락처 042-255-00004안내
- 상담시간 평일 9:30~17:00
주말 9:30~12:00
- www.djywca.or.kr

자료(재구성)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위키「디지털 성범죄」
- 서울특별시,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시민편)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유일무이젠더팀

“市가 청년을 호명할 때 그곳에 ‘여성 청년’이 있나요?”

글 · 권사랑_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젠더팀장

글쓴이는 대전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잡지를 만들고 워크샵, 전시, 강연을 기획하는 BOSHU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

여성 청년이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경험이 개개인에게도 중요하다. 변방에서 얘기하던 여성들이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다리가 되지 않을까?

”



유일무이 젠더팀의 이벤저스 팀원들을 소개합니다

- 배재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90년대생 유진이를 김경은, 최소윤
- BOSHU 권사랑, 서한나, 신선아
- 여성인권티움 장지현, 전한빛
-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동아리 BIG WAVE 이상민
- 카이스트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김태현

QUIZ

다음은 대전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공통점은?

1 몇 년 전 중구 중동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 공간이 생겼다. 이 공간이 위치한 곳은 성매매 집결지이기도 하다. 이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던 여성 청년이 남 성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2 청년 연구 공모사업이 진행되었다. 심사 위원 다섯 명이 전원 남성이었으며, 다른 청년 대상 지원사업에서도 여성 심사위원은 5명 중 한 명이었다. 면접장에서 여성 청년의 삶을 이야기하자 그 어려움이 실재하는 게 맞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정답 : 성인지적 관점이 없다.



대전에 청년담당부서가 생기면서 여러 정책들이 만들어졌지만 4년째 대전에서 청년, 여성, 지방을 키워드로 활동하던 BOSHU팀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 여성 청년의 삶을 반영한 정책은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다. 청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성 청년이 접근할 때 안전한 공간인가?’, ‘청년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성비는 어떠한가?’ 등 성인지적 관점으로 해당 정책을 바라보았다면 여성 청년을 누락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쉬움을 느끼던 BOSHU팀은 대청넷에서 젠더팀을 꾸려 활동하기로 했다. 대전에서 여성주의 활동을 하며 흩어져 있던 청년들이 모여, 지금의 ‘유일무이 젠더팀’이 만들어졌다.

대청넷 젠더팀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서한나_ 대청넷이 생겨난 이후 시 관계자나 청년 활동에 관심 있는 지역 어른들이 그 행보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 그 안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을 살펴보면 여성 청년들의 삶에 대해 주의 깊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이 정책상의 공백으로 이어지고있다. 청년이 호명되는 자리에서 여성 청년의 이야기가 계속 누락된다고 느껴오던 중, 대청넷에 참여해서 직접 목소리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기존에 대전에도 여성단체나 여성주의 관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 많은데, 이 주체들이 산재한 상태에서 벗어나, 다 같이 모여 시 산하 기관에서 우리 의견을 반영하게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여성 청년이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경험이 개개인에게도 중요하다. 변방에서 얘기하던 여성들이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다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참여하게 되었다.

장지현_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청넷 젠더팀에 참여하면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 같은 페미니스트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단체에 속해 있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성이 직접 이야기하는 여성 정책과 남성이 이야기하는 여성 정책은 극명한 차이가 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만들어내는 정책들은 실효성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여성을 바라볼 때 ‘기혼 여성’을 상정해 정책을 만들고, 결혼이나 출산을 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만들어 왔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을 여성 청년을 위한 정책이 부재한 만큼 여성정책 안에서도 관련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합류하게 됐다.

*출처

[여성 1인가구 안전정책은?] “1인가구 여성 대상 범죄, 통계조차 없어” 2018.12.21
강력범죄 피해자 90%는 여성... 서울 여성 2명 중 1명 “불안하다” 2019.01.21
[통계로 본 성폭력 범죄] 10년째 매년 증가, 피해자 절반 10~20대 여성 2016.08.28 / 여성신문

이렇게 모인 이벤저스 젠더팀의 올해 관심사는?

권사랑_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여성 2명 중 1명(50.3%)은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강력범죄 피해 현황을 성별로 분석해보니 전체 피해자 7330명 중 여성 피해자가 90%(6594명)에 달했으며,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93.5%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20대 여성의 사회안전 불안감은 남성보다 30.5% 높았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 중 절반이 1~20대 여성이라는 통계는 여성 청년이 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지 보여주고 있다.

특히 1인가구 여성의 경우 집 안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데, 2014~2017년 주거침입 관련 범죄는 총 7만1868건이며 특히 주거침입 성범죄는 최근 4년간 총 1310건으로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99.8%였다고 한다.*

치안을 위해 여성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동시에 여성들은 임금 격차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청년을 고려한 주거 정책은 필수적임에도 기존의 주거 정책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젠더팀이 대전시에 바라는 것은?

권사랑_ “대전광역시 청년 주택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에서 청년들이 공동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어떨까? 특히 여성들의 공동 주거가 가능해진다면 같은 예산으로도 개개인이 덜 불안하고,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지현_ “대전광역시에서 청년 대상 임대주택 정책을 마련할 때, 1인 여성가구도 치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여성 청년 전용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안전한 지역에 해당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여성 대상 범죄에서 더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민_ “20~30대 여성 청년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지역에서 여성 안전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젠더팀은 앞으로

8월 중에 대전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에 관해 이야기하는 집담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1인 가구 여성들의 주거 생활과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여성의 삶을 고려한 주거 정책은 어때야 할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젠더 팀은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대전시의 청년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변화의 근거를 찾아내는 팀이 되어보려고 한다.

젠더팀 뿐만 아니라, 대청넷 구성원을 포함해 청년 정책을 다루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도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시가 ‘청년’이라고 말할 때, 그 안에 당연히 여성 청년이 있어야 하니까! **W**

두런두런 이런 일이!?



대전광역시

“시민이 함께 행복하고 평등한 대전”

01 |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2019~2020 성인지 정책 기본계획」 수립

대전시는 민선7기 새로운 성인지 정책 원년으로 일상에서 공감, 생활에서 체험 중심으로 “시민이 함께 행복하고 평등한 대전” 실현을 위한 「2019~2020 성인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성 인재 육성과 생활체감형 정책 추진, 일상의 평등문화 확산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신설하였고, 시대변화와 사회여건을 고려한 시민참여 34개 정책에 성인지관점을 반영하면서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첫 단계로 여성친화도시 5개년(2020~2024)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인력풀을 강화할 계획이며, 6월부터는 「대전 미래여성아카데미」를 운영, 점진적으로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해 평등사회 실현에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일상에서 체감하는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성인지 아이디어 공모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고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 공무원 성평등 인식 설문조사, 민·관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7월에는 양성평등 주간행사 및 100인 원탁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성평등한 시민의 정책참여를 강화하고자 서포터즈단을 구성하고 젠더공감 2030, 성평등보이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일하기센터 등을 지원하여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장려하면서 9월에 취·창업박람회를 개최 할 예정이며, 사회적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

02 | 가족소통 연극 ‘소통하는 家’ 개최

대전시는 올해 가정의 달 슬로건을 “세상 모든 가족 함께”로 정하면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해 성별, 세대 간 소통 강화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5월 12일 오후 3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가족소통 연극 ‘소통하는 家’를 개최했다.

대전시 가족특화사업으로 처음 실시한 이 연극은 가족 간에 있을 법한 사례를 연극으로 꾸며 가족의 모습과 의미, 화목한 가족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가족 내 양성평등의 가치관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연장에서는 미니 에코백 만들기과 우리 가족 얼굴 쿠키 만들기, 캘리그라피 손거울, 드림캐처, 페이스 페인팅, 미니정원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었다.

앞으로 7월과 9월에 2회 더 개최할 예정이며 대전시 거주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① 성인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소통 청년간담회
- ② 청년간담회 의견모음
- ③ 소통하는 家 연극



①



②



③



동구

여성친화도시로 신바람 나는 동구



동구는 지난 5월 5일 제97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대전대학교 맥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신바람 나는 동구 어린이날 큰잔치’를 개최하면서 여성친화도시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 및 공연들로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면서 행사장에 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구여성친화도시의 주요 내용들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뒀다.

이날 홍보 부스에서는 ▲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 아이디어 게시판 운영 ▲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배부 ▲ 캘리그라피 체험행사 ▲ 가족행복사진 공모전 홍보 등을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인식개선, 지역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주인의식 제고 등 여성친화도시를 구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동구의 의지를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또 동구 아동·여성 지역연대와 연계하여 아동여성 안전 캠페인도 실시하였다.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예방홍보 및 기관안내 ▲ 홍보물(물티슈, 마스크) 및 리플렛 배부 ▲ 아동, 여성 폭력 피해자 발생 시 지원 안내 등 다양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여 아동 및 여성 보호에 대한 이해와 가정·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에 주력하였으며 지역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관계를 단단하게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중구

중구 여성친화도시, 기대하세요!



중구는 2020년 1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관의 여성친화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를 시작하고, 3월 21일에는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업과제 발굴에 힘쓸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을 실시했다. 중구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중구청 소속의 모든 공무원이 여성친화적 감성을 자연스럽게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5월 한 달간 중구 17개동을 순회하면서 달라지는 중구 여성친화도시를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주민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고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주민 설명회는 홍보용 동영상 시청 및 여성친화도시의 개념 설명, 민·관 협력체계 당부 순으로 진행됐다. 이 밖에도 중구의원 간담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실시하여, 중구의 모든 기관, 구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서구

행복한 서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부터



서구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시청 남문광장 및 보라매공원 일원에서 아동권리 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제97회 어린이날 큰잔치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구가 추진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홍보하고 아동권리 인식 확산 및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획됐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아동의 4대 기본 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인증 10가지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전략을 개발·시행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사업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구 아동·청소년 구청참여단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거리행진,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유엔아동권리 협약 홍보, 아동권리지킴이 서약, 아동권리 포토존 운영, 아동권리 인식도 설문조사, 유니세프 F2F(Face to Face)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동권리 지킴이 서약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가 조성됐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F2F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 구호활동 소개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서구는 이번 캠페인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해 서구 특성에 맞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성구

아이 웃음이 눈부신 유성구, 폭력 없는 행복한 유성구



유성구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육아를 하는 부모들의 자발적인 모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모집대상은 구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공동육아하고 있거나, 하려는 5가정 이상(10인 이상)의 모임 및 예비 엄마인 임신부 10인 이상의 모임이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포함한 모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임신부 모임까지 대상을 확대해 예비 부모들의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초보 엄마·아빠교육, 부모-자녀 공감프로그램, 가족친화체험활동 등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10개 모임(단체)에게 육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강사비, 체험비 등 모임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을 위해 아동·청소년과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11월까지 실시하여 폭력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경험을 살려서 올해부터는 폭력예방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인 및 학부모와 11개동 통·반장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폭력예방교육은 왜곡된 성 인식 및 성폭력·가정폭력의 개념과 발생원인, 그에 따른 대처방안 등 올바른 성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20명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수요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대덕구

대덕구 여성인재양성소 '제2기 대덕여성리더십 아카데미 개강'



대덕구는 여성의 대표성 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4월 19일 제2기 대덕여성리더십 아카데미 개강식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지역여성 인재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을 시작으로 5년간 구청장약속사업으로 추진되는 '대덕여성리더십 아카데미'는 올해 2기를 맞이하였다. 참여자 공개모집을 통해 여성구민과 대덕구에 직장을 둔 여성 약 30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의 교육이 이뤄지며 세부 주제별로 전문강사 강의, 사례토론, 현장체험과 대덕구 주요 정책에 관한 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세부 주제는 ▲양성평등과 여성리더십 ▲대덕 문화와 여성 ▲여성친화적 도시재생 ▲예산과 여성 ▲사회적 경제와 여성 ▲재난 재해와 여성의 안전역량 ▲공동돌봄 ▲젠더폭력과 안전 등이다.

1회 차에는 김경희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지역사회를 바꾸는 여성의 힘'이란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3회 차에는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젠더관점을 고려한 도시재생'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6회 차에는 각종 재난에 대해 여성의 대응 및 안전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전119시민체험센터에서 생활, 지진, 소방, 위기탈출 등 현장훈련도 가질 예정이다.

아카데미 수료자는 향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구청 의사결정 과정 참여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여나가고 성별에 따른 요구의 차이를 정책에 더 잘 담아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W**



한눈에 두런두런



여성계 활동 이모저모



대전YWCA

대전YWCA는 1946년 4월 10일 대전지역에 창립되어 올해로 73년을 맞이하는 여성단체이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대전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운동을 펼쳐왔다. 대전YWCA는 2019년 상반기에도 생명 사랑과 평화를 향해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움직였다.

[2019년 1월 31일] 설 큰잔치(중구 중촌동 효심정)

경기불황의 여파로 후원의 손길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충남대학교 LINC+사업단과 대전YWCA가 공동주최하여 결식노인들의 건강체크(혈압측정, 혈당검사 등)과 균형 잡힌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2019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DMZ민(民)+평화손잡기’ 개최

중립 구역인 강화에서 고성까지 500km를 민(民)의 손으로 연결하여 한반도 시민의 평화 염원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운동에 참여하면서 YWCA는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역사적인 행사에 참여해 평화와 통일의 시대적 염원을 직접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며, 대전YWCA도 이 평화의 축제에 동참하였다.

[2019년 5월 25일] 워라벨 가족하이킹 (대전청소년 위캔센터)

워라벨 가족하이킹은 과중한 일에 지쳐 충족되지 못했던 직장인 가족에게 가족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일·생활 균형 가족체험 프로그램이다. 총 40가정 (150명)이 신청하였으며 직장인 댄스 팀의 식전공연과 가족이 함께하는 공동체놀이, 우리가족 가훈 만들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관계 개선의 시간을 보냈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대전YWCA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가 협력해서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으로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❶ 설 큰잔치 (중구 중촌동 효심정)
- ❷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DMZ민(民)+평화손잡기’
- ❸ 워라벨 가족 하이킹



❶



❷



❸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는 푸르름이 더해가는 눈부신 여왕의 계절 5월의 열한번째 날에 보문산 사정공원 일원에서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허태정 시장과 토요산책 행사를 가졌다.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친화적인 가정문화 확산 및 건전가정 육성,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대전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물원→청년광장→망향탑→청년광장→식물원으로 돌아오는 총 3Km에 이르는 길을 대전시장과 웃음꽃이 만발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산책하면서 시정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5월은 가정의 달로 새로운 대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초석은 가정의 화목'이라고 강조하였고 특히 여성단체에서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대전시장의 토요산책 with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대전여성단체연합

4월 11일은 '낙태죄'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이뤄진 날이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하면서 '낙태죄'에 대한 여성의 삶과 여성 운동의 성과, 의미의 공유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5월 22일(수)에 대전NGO지원센터 내의 대회의실에서 “여성운동, 낙태죄 폐지 투쟁의 경과와 현재 불합치 결정 이후 과제”, “여성건강권 측면에서의 낙태죄의 위해와 개선방안”의 제목으로 발제가 이뤄졌고 교육, 청년, 노동, 보건 의료, 법조, 여성 분야로 구성된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낙태죄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사회적 배경과 사건들의 설명과 함께 낙태죄 폐지를 위해 노력해온 여성운동계의 활동 등의 소개가 이뤄졌으며 단순한 인구정책을 위해 낙태죄를 옹호하는 것에 반대하고 개인의 삶과 여성의 건강권 측면에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강요와 처벌에 의한 강제적 재생산이 아닌 재생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와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며 이를 위해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앞으로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분야별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감감 유소식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News

“밋밋한 사고에 주름을 잡다” – 젠더 콜로키움

청년세대 젠더 이슈 픽 – 남성성과 혐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6년부터 여성 및 가족 이슈와 담론을 파악하고, 전문가 역량 강화 및 신진 연구자 발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다. 2019년의 첫 번째 젠더 콜로키움(통합 13회)은 지난 2월에 열렸다. 이날 발표된 주제는 강인화 박사의 『한국 징병제와 국민/남성: 1945–1960』와 최영지 씨의 『소비사회와 청년세대의 '여성혐오'』였다. 강인화 박사는 한국사회에서 징병제의 보편화 과정과 남성성 형성에 주목했으며, 병역이행자들 대다수가 징병제의 '피해자'이자 '옹호자'로 기능하는 모순과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지 씨는 '여성혐오' 현상의 소비사회의 영향과 이로 인해 나타난 양상을 분석했으며, 소비사회가 청년세대의 개인화 및 타자화에 기여하고 있고, 이것이 혐오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강인화_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최영지_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네트워크로 본 젠더 불평등

5월에 개최된 제2회 젠더 콜로키움에서는 『네트워크로 본 젠더 불평등 – 선택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주제로 카이스트 이원재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원재 교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나타난 친구 네트워크 변화 과정에서의 성차, 여성과 남성의 네트워크 형성 차이, 인간관계에서 서열과 지위의 중요성 등에 주목했다. 참여자들은 젠더 연구를 함에 있어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젠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심층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센터는 학문적 대상인 '젠더'에 대한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편안한 자리를 마련하여 “밋밋한 사고에 주름을 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콜로키움을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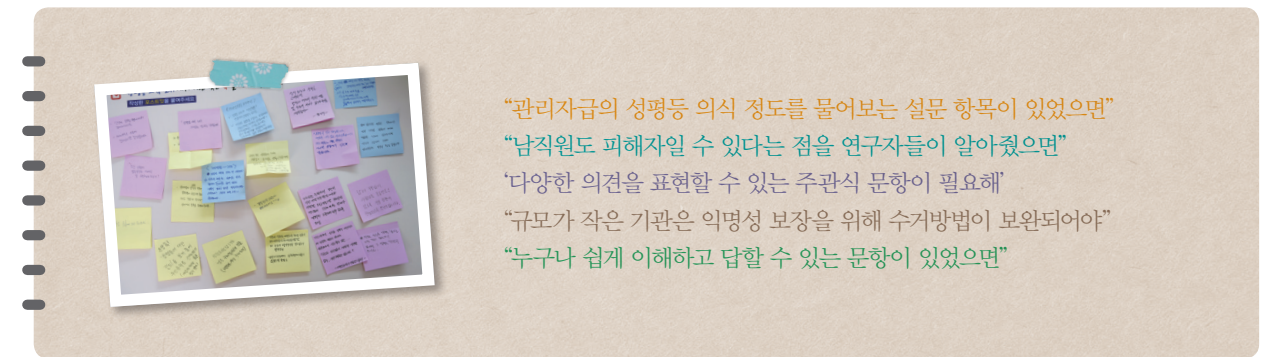
이원재_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성평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공공기관 종사자 간담회 개최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대전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성평등 또는 인권 윤리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와 '2019년 성평등 의식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성희롱 실태조사' 이후 기관 내 변화가 있었으나, 성평등 의식 확산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4월 중 대전시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중에 있으며 최종 결과는 8월에 발표 예정이다.



세종시 여성가족기관의 목소리를 듣다

2019년 제1회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

‘세종시 여성가족정책추진기관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9년의 첫 번째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이 4월에 열렸다. 이번 포럼은 대전과 세종의 광역생활권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정책들이 제안·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기관 종사자, 활동가 등 관계자들의 상생협력 기반 마련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참여한 세종시 4개 여성가족기관(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 통합 상담소,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은 운영방향, 추진체계, 사업현황, 기관을 둘러싼 이슈, 향후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이영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진행으로 최해경 충남대학교 교수와 최성은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정토론 및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영화 속 성 대상화와 폭력의 상처들

그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싸웠나

술을 먹지 말았어야 했을까? 아니면
거기서 춤을 추지 말았어야 했을까?
분명한 건 주인공이 피해자고, 가해자
들이 눈앞에 있고, 증인과 증거물이 차
고 넘치는데 그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고? 주인공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행실이 바르
지 못한 여자’였기 때문이다. 오해 마시
라. 영화 이야기다.

글 · 지나라_자유기고가, '말글' 대표

영화 델마와 루이스의 한 장면



‘행실 바르지 못한’ 여자가 감당해야 할 사건

거친 인생을 사는 사라(조디 포스터)는 애인과 싸운 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술집에 간다.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흥에 취해 그곳에서 춤을 춘다. 끈적끈적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세 명의 남자는 그곳에서 사라를 무참히 폭행한다.

영화 <피고인>은 사라를 폭행한 범인을 법정에서 세우고, 단죄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다. 이미 현실에서도 수없이 목격하고 있듯 그 과정은 쉽지 않다. 법과 제도는, 공권력과 관습은, 그리고 사람들은 남성들에게 범행의 동기와 목적을 묻지 않는다. 대신 사라에게 묻는다. 왜 짧은 치마를 입고 술집에 갔으며, 왜 술을 마셨으며, 왜 선정적인 춤을 추었는지.

담당 검사인 캐서린(켈리 맥길리스)도 사건을 말자마자 이 사건이 사라에게 유리하게만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한다. 사라의 행동과 태도, 사건 당시의 옷차림 등이 언론이나 배심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검사는 가해자들의 변호사 측에 협상안을 제시한다.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이 낮은 혐의만 적용하자는 거다.

분노한 사라는 이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그 어떤 행동도 용서할 수 없다. 술에 취했더라도 사라는 똑똑히 기억한다. 남자들이 동물처럼 돌변해 달려들 때 자신이 분명 ‘노(No)’라고 외쳤다는 사실을. 캐서린도 점차 사라에 공감하고 둘은 남성 중심으로 공고한 진지를 구축한 법과 제도, 공권력과 관습에 맞서 싸운다.

법과 제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그들

영화 <피고인>이 그래도 법과 제도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면, <델마와 루이스>는 법과 제도에 큰 기대감을 보이지 않는다. 보수적인 남편을 둔 가정주부 델마(지나 데이비스)와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루이스(수잔 새런튼)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탈출하기 위해 함께 여행을 떠난다. 각기 다른 사정으로 제대로 된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지 못했던 델마와 루이스는 도로에서 만나는 소소한 일과 풍광을 만끽하며 여행을 즐긴다.

미래는 보장되지 않고 특별한 삶의 계획도 없지만, 영원히 사막을 달리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 시간. 하지만 늘 그렇듯 행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 우연히 들른 휴게소에서 자신들을 성폭행하려는 한 남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다. 행복했던 여정은 결말을 알 수 없는 도주가 된다. 그 와중에 매력적인 카우보이에게 배신을 당하는 불행도 겪지만, 마침내 그들은 국경에 다다른다.

델마와 루이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을 동정하는 형사의 설득도 질주를 막지 못한다. 그들은 안다. 법과 제도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젠간 다시 삶과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런 원점으로의 회귀가 다시 불행의 늪이라는 사실을.

“

연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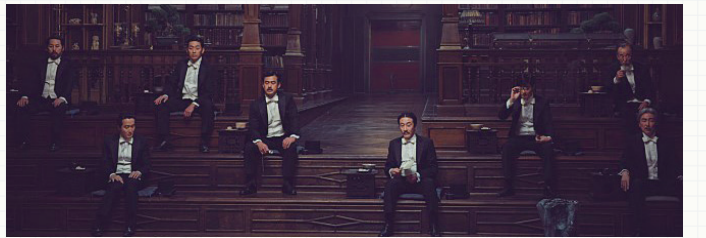
우리가 잃을 것은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자유다.

”



① 델마와 루이스는 법과 제도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다 ② 영화 피고인의 한 장면



아가씨에서 등장하는 서재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착취와 대상화의 무대다

목숨을 버려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페미니즘의 교과서와 같은, 그래서 어느새 고전처럼 느껴지는 두 편의 영화를 소환한 이유는 영화 속 주인공들이 여전히 자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폭행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차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한국에서는 특히 그렇다.

이제부터는 현실이다. ‘별장 성 접대 사건’은 피해자의 호소와 선명한 동영상 존재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자연 씨 사건’은 추악한 권력이 신인 여배우를 어떻게 이용하고 농락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여러 정황과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도 진상조차 여전히 요원하다. 최근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바닝썬 사건’은 또 어떨까.

이런 일련의 사건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착취는 영화보다 더 잔인하고 참혹하다. 다행히 여성들은 사라처럼 당당히 맞서 싸워왔다. 우리의 법과 제도가 이들을 외면한다면 델마와 루이스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목숨을 버려야, 혹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곳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이 시점에서 소환할 또 한 편의 영화가 있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다. 이 영화에서 엄숙해 보이는 서재는 남자들의 욕망을 해소하는 성적 착취의 무대다. 서재를 가득 메운 서적은 야설과 춘화가 대부분이다. 이곳에서 낭독자로 훈육된 히데코(김민희)는 남자들 앞에서 도색소설을 구연(口演)한다. 히데코는 숙희(김태리)의 도움으로 남자들에 복수하고 탈주에 성공한다. 그리고 보면 이 영화는 <피고인>의 변주곡이자 <델마와 루이스>의 확장판인 셈이다.

성적 대상화와 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연대다. 그래서 영화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연대하라. 우리가 잃을 것은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자유다.” [W](#)

덧붙임

익히 알려져 있듯 <피고인>과 <델마와 루이스>는 페미니즘 교과서와 같은 영화다. 그렇더라도 이 영화들이 그렇게 읽히기만을 바라지 않는다. 영화 자체로도 수준 높은 작품성과 완성도를 자랑한다. 조디 포스터, 수잔 새런튼, 지나 데이비스 등 유명 배우들의 젊은 모습을 만나는 것도 소소한 재미다. 참, <델마와 루이스>에는 브래드 피트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 느끼던 브래드 피트의 모습을 기대하지는 마시라.

드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혐오 논란

글 · 김인희_인문학강사, 프리랜서

무대위에서, 드가, 캔버스에 유채, 1878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그러나 예를 들어 여성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에드가 드가의 그림이나 다른 남성 화가들이 그린 여성의 모습을 볼 때는 결코 공감할 수가 없었다. 나로서는 결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인데, 그림 속 여자들은 그저 여기저기 널브러져 응시의 대상이 되는 것에 만족해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 주디 시카고, 〈여성과 미술〉, 1998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소비된 여성의 몸

한국 사회가 요즘 여성혐오 문제로 뜨겁다. 기존의 남녀갈등이라는 문제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새롭게 등장한 이 ‘여성혐오’라는 말에 의아함을 품을 것이다. 일단 여성 스스로 여성을 혐오한다는 게 어쩐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렇다면 남자는? 세상에, 어떤 남자가 여자를 혐오한다는 건지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사실이긴 하다. (반대로, 남자는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문제가 됐던 게 아니었던가?) 이는 단선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 막말로 사람들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무척 애끼고 매우 사랑하긴 하지만, 그들을 자신과 같은 인격체로 동등하게 생각하고 존중하지는 않으니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화두가 되는 ‘여성혐오’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짚어볼 수 있다. 이는 당연히 여성에 대한 선호나 선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녀를 자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성혐오 문제가 바로 대상에 대한 존중이나 아니냐의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미술적 표현에서는 여성의 대상화가 바로 이 논제에 대한 주요한 테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상술했던 주디 시카고의 드가 그림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의 표현에 대한 언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카고의 불편한 언사는 드가를 비롯한 기존의 남성화가 – 미술가들이 가졌던 여성에 대한 시선과 묘사에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는 대단히 혁명적인 시각이기도 하다.(서구권 미술에서 이와 같은 페미니즘적 미술 비평은 68혁명 이후인 1970년대부터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동안 서양미술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너무도 당연시 되는 시각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이는 다분히 당대의 남성우월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포르노나 다름없는 이미지를 생산하고 소비해 온 서양미술 전



비너스의 탄생, 알렉상드르 카바넬, 1863년, 캔버스에 유채, 오르세 미술관 소장.
카바넬의 이 작품은 발표 당시 살롱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황제 나폴레옹 3세가 국비로 구입해서 소장할 정도였다. 카바넬은 이 작품을 계기로 미술 아카데미의 종신 교수가 되기도 했다.



올랭피아, 마네, 1863년작, 캔버스에 유채, 오르세 미술관 소장.
이상화된 여성 누드화를 그리는 당대의 원칙을 거부하고 평범한 여성 모델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여인의 누드화를 그려 당대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마네는 이 작품으로 인한 빚발치는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2년간 프랑스를 떠났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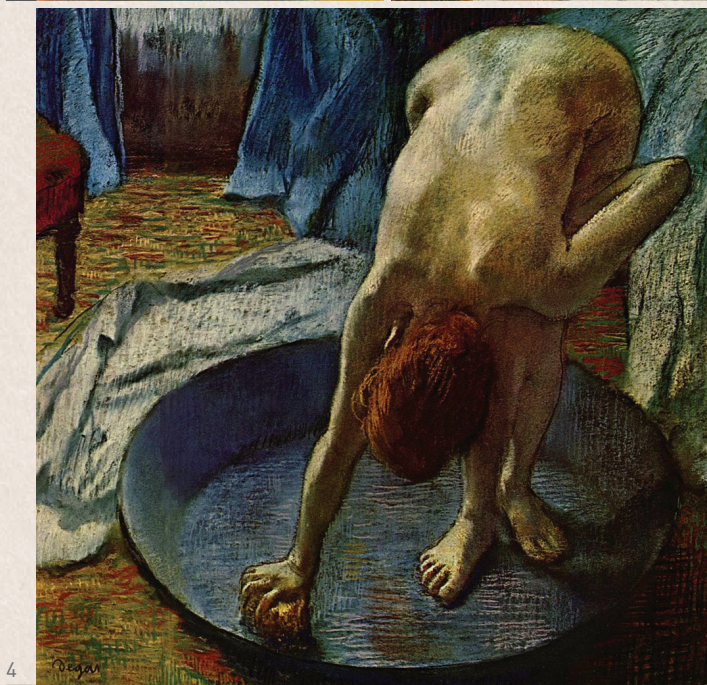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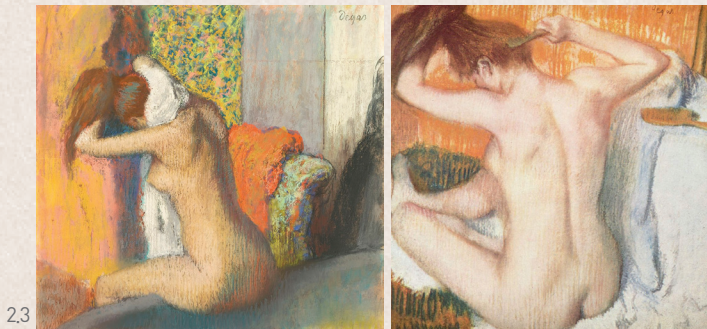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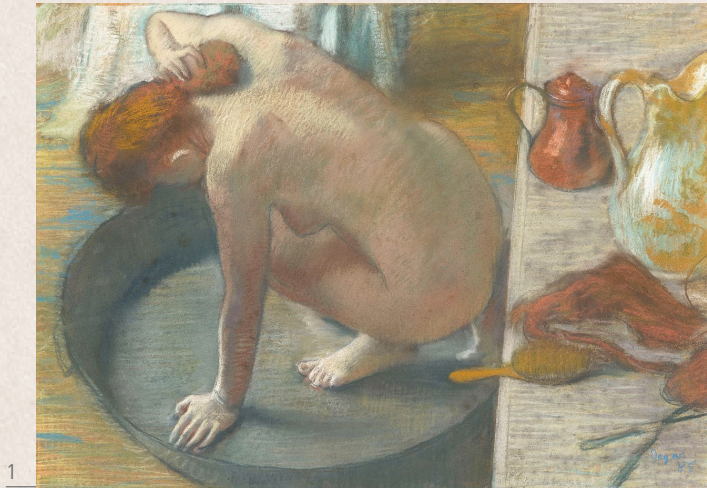
반에 대한 비판적인 논제이기도 하다. 왜 유명 예술 작품에 나타난 여성 묘사를 포르노에 비유하는지 의아하게 생각된다면, 서양미술에서 가장 흔한 주제인 여성 누드 작품들을 떠올려 보라. 그리고 마네의 올랭피아(1863)를 이어 연상해 보라. 같은 누드 작품인데 왜 여신을 묘사한 누드 작품은 위대한 미술이라고 칭송을 받은 반면, 마네의 올랭피아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자. 기존의 누드화들과 달리 마네의 작품이 가졌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올랭피아가 당대의 여신들과는 달리 평범한 외모로 그려졌고, 바로 그 ‘평범한 외모’를 ‘못생긴 여자가 벗고 있는 그림이라 음란하다’고 당대인들이 공분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아름다운 여자가 벗고 있는 그림(포르노)을 보면서 ‘신성한 여신’을 그린 그림이라 ‘전혀 음란하지 않고 수준 높은 예술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존의 여성 이미지를 소비해 왔던, 서양 미술 전반의 (지극히 기만적인)시각적 의식의 본질을 폭로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없는 시선? 드가의 관찰자 시점

그런 측면에서 시카고가 특히 지목한 드가의 여성 묘사는 상당히 복합적인 여러 관점을 제시한다. 드가는 20년 가까이 그 유명한 ‘발레 그림’에 천착해 왔고 만년에는 ‘욕조’를 비롯한 일련의 목욕탕 시리즈로 화단의 주목을 받은 바가 있다. 시카고가 지적한 ‘그저 여기저기 널브러져 응시의 대상이 되는 것에 만족하는’ 여성 이미지들이 집중적으로 그려진 것은 바로 그의 ‘욕조’ 그림. 이른바 목욕탕 시리즈에서이다. 드가의 이 욕조 그림들에서 등장하는 여성들은 기존의 누드화에서 보여 졌던 의식적인 자세나 꾸민 듯 한 포즈가 전혀 없는, 진정한 자연스러운 자세로 머리를 빗거나 수건으로 몸을 씻거나 욕조에 물을 받기 위해 몸을 수그리고 있다. 어떤 모습으로? 물론 다 벗은 모습으로! 왜냐하면 목욕을 하기 위해서니까! 이러한 묘사는 당대 미술계에 이색적인 평을 불러왔다. 이른바 ‘마치 열쇠 구멍을 통해 들여다 본 것처럼’ 감상자들에게 여성 신체에 대한 전혀 색다른 감상의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마치 불법 촬영을 본 듯한 충격적인 이미지이지만 당시에는 단지 색다른 누드로만 여겨졌다) 드가는 이러한 욕조의 여인들을 일본의 판화가 호쿠사이의 ‘만화집’에 수록된, 스모 선수들의 일련의 동작들을 묘사한 그림들에서 영감을 받아 그렸는데 그는 이것을 여성들을 자세히 관찰한 토대에 의해 그려진 것이라고 평했다. “나는 그들을 기존의 누드모델을 관찰하듯이 아니라, 몸을 씻고 있는 동물 같은 원초적인 모습을 표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대상이 된 여성을 개와 고양이와 같은 작은 동물들 혹은 건장한 말을 관찰해서 그린 것처럼 그렸다는 얘기다.

드가의 이러한 연사는 그의 이색적인 누드화와 함께 두고두고 회자되어 왔다. 드가가 여성 혐오가 였다는 얘기도 미술계에서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다. 여성을 사람이 아닌 동물(자연)에 빗대어 관찰한다는 얘기도 서슴없이 할 정도의 인사였기에, 드가라는 사람이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여길 수도 있지만 그의 사생활은 결혼을 한 적이 없고 –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에게 애인이 있었다는 근거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독신의 삶을

1. 욕조, 드가, 1886년,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2. 목욕 후 머리를 말리는 여인, 드가, 1898년, 종이에 파스텔,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3. 머리를 빗는 여인, 에드가드가, 1884년, 종이에 파스텔,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4. 욕조의 여인, 드가, 1886년, 코네티컷 힐 스테이드 박물관 소장



고수한 – 그리고 어떤 일화를 보더라도 모델이 된 무용수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예의바른 신사였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드가는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는 경향은 있었다. 이는 평생 그의 절친이었던 동료 화가들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성격은 단지 그의 뚜렷한 개성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두고 그의 인성을 논할 수는 없다. 한 마디로 도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드가는 여성혐오자인가? 페미니스트인가?

비단 누드화 외에도 드가가 그린 발레리나들, 공연 중인 오페라 가수나 춤추는 여인들을 그린 그림들에서 이상하게 얼굴이 일그러져 있거나 흉하게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혹자는 이렇게 못생기거나 기괴하게 일그러진 여인들의 얼굴을 보고 드가에게서 여성혐오 성향을 읽어 내기도 한다. 그러나 단지 여성을 못생기게 그렸다고 해서 여성혐오를 지적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반대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지극히 아름답게 그렸던 기존의 미술 이미지들을 생각해 보라 – 여성혐오라는 개념은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 드가가 그린 그 여인들의 일그러진 얼굴들은 무대 위의 조명이 반사되어 나타난 얼굴의 음영을 놓치지 않고 표현한 그의 묘사력에서 기인한다. 사실 다른 화가들 같으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상업성 때문이라도) 모델의 그런 모습을 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드가는 이른바 대상의 망가진 모습에도 지극히 관심을 보였을 뿐인 것이다. 사실 이는 그의 작품

“

그러나 단지 여성을 못생기게 그렸다고 해서 여성혐오를 지적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반대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지극히 아름답게 그렸던 기존의 미술 이미지들을 생각해 보라 – 여성혐오라는 개념은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

1. 두 발레리나, 드가, 1879년, 쉐버른 박물관 소장
2. 무대위의 발레리나들, 드가, 1874년, 종이에 파스텔,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3. 카페 콘서트에서 부르는 개의 노래, 드가, 1875년 작, 종이에 파스텔, 개인 소장
4. 장갑 낀 가수, 드가, 1878년, 종이에 파스텔, 메사추세츠주 캠브리지 포그 미술관 소장

들에 나타난 여성 묘사에 있어서 상당히 일관적인 것이기도 한데, 그가 그린 일련의 발레리나 그림들에서도 무용수들은 춤을 추는 모습 그 자체가 아름다운 뿐 무용수 개인이 여성으로서 성적 매력이 느껴지게 그려진 것은 아니다. 이런 경향은 그의 욕조 그림들에서도 보이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목욕하는 벌거벗은 여인들도 딱히 관능적으로 그려지지 않아서 어떤 여성 평론가들은 욕조 그림의 여인들을 ‘자매나 딸이 목욕하는 것을 지켜보는 가족의 시선’이 느껴질 정도로 편안한 시각으로 그려진 누드라고 평가기도 한다. 이는 바로 드가가 가진 화가 특유의 ‘대상과 거리 두기’ 자세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흐는 동료 화가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가의 이런 태도가 사실은 그가 여성에게 전혀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무성애자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장난스럽게 언급한 바가 있다. 고흐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여쭙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화가 개인이 가진 뚜렷한 개성이 그의 작품에 별다른 개성과 색채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결론을 내려 보자. 드가는 과연 여성 혐오자였을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불법촬영 이미지가 연상될 정도로 파격적으로 그려진 그의 누드화와 지극히 아름다운 색채와 동작으로 어우러져 있지만, 조명의 대비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발레리나와 오페라 가수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지극히 까다롭지만 교양 있고 친절한 신사. 판단은 그의 작품을 관람하는 당신의 몫이다. **W**



우리가 좋아하는 리듬이 있지

여성 전용 DJ파티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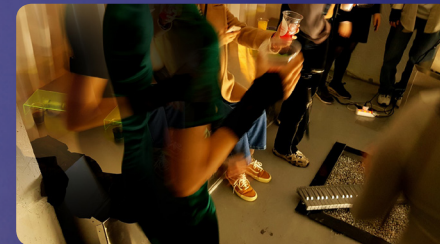
클럽 갈 때, 입구부터 복장 검사하잖아.
여자는 상의든 하의든 어디 하나는 노출이 있는 옷을 입어야 ‘뺨찌’를 안 당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12시 이전에는 여성 무료입장인데 이것도 이상하고,
그냥 내 돈 내고 들어갈 테니까 클럽 안에서 성추행하는 남자들 좀
못 오게 했으면 좋겠어 - BOSHU팀원 여송하

글 · 서한나_청년집지 보슈(BOSHU) 편집장

흥 많고 춤추는 걸 좋아하는 우리 BOSHU팀 멤버들은 종종 클럽에 간다. 때마다 신경 쓰이는 것은 복장이다. 당신이 여자라면 편안한 복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 가슴이 파이거나 다리가 드러나야 무사히 입장할 수 있다. 줄 서 있는 남자들을 보면 샌들도 신었고 야구모자도 썼고 반팔에 반바지 차림이 어도 절반 들어가는데, 여자는 ‘포리’를 신거나 긴 바지에 긴 티를 입고 들어갈 수 없다.

‘클럽 복장’을 하고 들어가면 뒤로 바싹 붙는 남자, 손목 잡는 남자, 얼굴 들이밀고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남자, 우리끼리 놀려는데 추근덕대는 남자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 복장과 추행 문제를 넘어서 이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2019년 1월, 여성 전용 DJ파티〈우리가 좋아하는 리듬이 있지〉를 열었다. 우측은 기획의도를 포함한 기획안이다.



우리가 원하는 클럽을 직접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그러나 둔산동 클럽을 빌리자니 대관료가 비쌌다. 공간 구성과 스피커 유무, 조명 등을 따져 은행동 인근에 60~7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카페를 빌렸다. 취지를 이해하는 여성 DJ 네 명을 섭외했다. 대전 각지에서 클린한 클럽을 원하는 20~30대 여성들이 모였다.

토요일 저녁 웰컴 드링크와 함께 뚝뚝뚝 파티가 시작되었다. 파티는 네 명의 여성 디제이들과 함께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시선과 추행 걱정 없이 우리가 좋아하는 리듬을 찾으며 흥들어냈다. 네 번째 디제이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 청년들에게 상징적인 노래가 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틀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파티가 끝난 뒤 “불쾌한 스킨십 없이 음악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파티 기획안	
기획이름	우리가 좋아하는 리듬이 있지 _ 여성 전용 DJ파티
일시/장소	2019년 1월 12일 18시~22시 대전 은행동 톤카페
기획의도	클럽에서 비밀비재하게 일어나는 성추행과 성희롱 때문에 여자들은 불쾌함을 느낀다. 하지만 왜 우리가 클럽에서 노는 재미를 몰라야 하죠? 무례한 시선과 성추행이 없는 깔끔한 파티가 필요하다. ‘우리가 좋아하는 리듬이 있지’는 무례한 시선과 불쾌한 접촉이 없는 파티를 컨셉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 파티 시작 시간은 오후 6시로 정한다.
예상 인원	60~70명, 대전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
준비물	판매용 보드카, 와인, 물, DJ 장비, 스피커, 스태프 명찰





게 더 컸어요. 우리가 이런 자리를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 폭력과 착취 없이 흥겹게 놀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니까요 – BOSHU팀원 권사랑”

두 번째 파티는 서울에서 열었다.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20–30대 페미니스트들이 모였다. 첫 번째 파티에서 함께 했던 네 명의 디제이가 음악을 틀었다. 파티의 큰 모양새는 첫 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시각 흥대 거리에서 성업하고 있는 클럽을 지나가면서 ‘여성 무료 입장’ 입간판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길게 늘어선 줄에서 여자와 남자의 복장이 다른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기형적인지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파티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버닝썬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경찰이 승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경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이나, 법원은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의 동업자인 버닝썬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도 지인들과 함께 새로운 클럽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현재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방송을 통해 강남의 한 클럽에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대형 모니터에 틀어 놓고 조롱하는 장면을 봤어요. 클럽 내 강간문화를 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그 유착 관계와 거대한 구조를 바꿔내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바라는 것은 대안 공간들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여성 전용 파티를 진행한 이후 서울 중심으로 ‘트레이닝북 입고 노는 여성 전용 클럽’이 열렸다고 해요. – BOSHU팀원 권사랑”

한쪽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갈이를 한다. 세상에 흐르는 리듬을 바꿔가는 방법이다.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리듬으로 흥대 한복판과 으능정이 일대가 출렁일 것이다. **www**

두 번째 기획안	
기획이름	우리가 좋아하는 기획이 있지_ 여성 전용 DJ파티 ver.2
일시/장소	2019년 5월 4일 22시~04시 서울 서교동 생기스튜디오
기획의도	여성을 사고파는 착취적인 클럽은 가라. 버닝썬 게이트 이후 분노한 여성들이 모인다. 새벽 내내 놀자. 왜 우리가 일찍 들어가야 하나? 우리에게도 밤을 즐길 권리가 있다. 같은 시각 흥대의 다른 혼성 클럽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12시 전 여성 무료 입장’으로 여성을 유인하며 ‘물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다. 남 시선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한 복장으로 모여서 미친 듯이 놀자.
예상 인원	100명, 20–30대 여성
사전 설문	Q 여성전용 클럽파티에 특별히 기대하시는 것이 있나요? A 꾸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원해요 A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파티였으면 좋겠습니다! A 성인이 되면 꼭 한 번쯤은 클럽에서 놀아보고 싶었는데,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해서 못 가봤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로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A 클럽에 가면 늘 꾸밈 압박과 성적대상화 때문에 음악 듣고 춤추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서울에서도 진행한다고 해서 너무 기쁩니다.”

그날의 빠근함이 하룻밤 추억으로 잊힐 무렵, 뉴스에 클럽 버닝썬과 클럽 소유주로 알려진 연예인 승리가 등장했다. 클럽 내에서 여성을 ‘악물 강간’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과 클럽소유주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피해경험과 추측으로만 짐작하고 있던 클럽 내 강간문화가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첫 번째 파티를 기획하기 전에도 남초 사이트에서 ‘골뱅이녀’(만취한 여성을 이르는 말) 같은 단어를 본 적 있다. 술에 악물을 타고 여성에게 먹여, 정신이 혼미해진 여성을 남성이 있는 룸에 넣어주고 그 대가로 클럽 직원이 돈을 받아가는 이야기도 들은 적 있다. 경악스러웠지만, 몇몇 범죄자의 일일 거라고 여겼다. 버닝썬 이후 분노한 여성들이 모일 곳이 필요했다.

“첫 번째 파티를 기획했을 때는 클럽 내 착취구조보다는, 우리가 노는 데 남자들이 방해되니까 우리끼리 파티를 만들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날 파티에 왔던 사람들도 재밌게 즐기고 돌아갔고, 기획자로서 저도 뿌듯했죠. 그런데 버닝썬 사건 이후에는 여성 대상 범죄가 생각보다 더욱 만연해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클럽에 놀러 갔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도 들여다보면 착취와 폭력의 굴레였구나 하는 생각에 비참해졌어요. 두 번째 파티를 준비하면서는 슬픈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불법촬영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